

그 땀 그랬지,
그 때 그 종목



ANALYST



김광현 Quant Analyst

02 3770 3634

kwanghyun2.kim@yuantakorea.com

Summary

그 땐 그랬지 - 시총 3위, 그리고 주도주

[Prologue] 2020년, 5개의 종목이 시총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년간 국내증시에서 월 평균 시가총액 2위를 해본 종목은 모두 6개 종목이다. 시총 2위 종목은 자주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시총 3위, 조금 더 넓게는 시총 3위~5위 종목에 주목해왔다.

시총 3위라는 자리는 밑에서 올라온 종목이 차지하기도 하고, 2위를 유지하다 내려온 종목이 머무르는 순위이기도 하다.

2020년, 5개의 종목이 시총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우),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LG화학, 그리고 하루동안 3위로 내려앉은 SK하이닉스였다.

올 한해 주도주로 활약중인 종목들과, 연초 이후 상대적으로 부진한 종목이 섞여 있다.

[Part 1] 주도주의 압축, 그리고 변화의 시간

KOSPI 지수와 KOSDAQ 지수는 모두 연초대비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한국은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증시 상승을 이끈 것은 개인의 수급이다.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넘치는 유동성은 쓸림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연초 이후 주도주로 활약한 BBIG의 주도력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주도주의 주도력 약화는 장의 성격 변화를 암시한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전환 과정에서 Fundamental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1) 조정을 잘 버티고 2) 조정 이후 Fundamental이 주목되는 업종으로는 증권, 은행, 자동차, IT HW 등이 꼽힌다.

터지기 전까지는 버블이 아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터지고 나면 그것이 버블임을 인지하게 된다.

액면분할, 물적분할 등 최근 국내외 주도주를 둘러싼 이슈에 관심을 뒤야하는 이유다.

[Part 2] 그 때 그 주도주, 그 땐 그랬지

기간	주도업종 / 테마	시대 배경	끝을 알린 트리거	주요 종목 시총 순위 변화
2007년	조선, 해운, 기계,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물동량 증가하며, 조선-해운 초강세 - 유가 90\$ 돌파, BDI 지수 11,000pt 돌파 - 07년 11월 주식형펀드 수탁고 100조원 돌파 - 조선수주 급증, 실적 성장 뚜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브프라임 모기지 우려 - 외국인 순매도 전환 - 조선주 시총 비중 하락 	현대중공업(15위 → 3위) POSCO(3위 → 2위)
2009년	자문사 7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로 급락했던 증시의 회복 과정 - 금융위기 이후 TARP, QE1 등 정책 실행으로 유동성 공급 - '저평가된 2등주' 컨셉의 자문사 7공주와 각종 테마주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장세 → 실적장세 - 차화정여로의 관심 이전 	LG화학(27위 → 10위) 하이닉스(40위 → 13위) 현대차(11위 → 3위) LG전자(8위 → 4위)
10~11년	자동차, 화학,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장세로의 전환 -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유가 급등(100\$ 돌파) - 이익 급증한 자동차, 화학, 정유 업종이 상승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IGS 국가의 CDS 프리미엄 급등 - OCI 유증 및 GDR 상장 	현대차(3위 → 2위) 기아차(18위 → 7위) LG화학(11위 → 5위) SK에너지(18위 → 10위)
14~15년	화장품과 모바일게임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강통 시행 이후 중국 증시 급등. 중국인 관광객 수 급증 - 국내증시 이익 부진. 증시 관심은 매출로 이전. 성장주 강세 - 메디톡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제약/바이오 동반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증시 하락과 위안화 환율 절하 - MERS 유행 - 아모레 액면분할 	아모레퍼시픽(43위 → 5위) 삼성물산(신규 → 4위) 한미사이언스(187위 → 31위) 한국전력(9위 → 2위)
16~17년	반도체, 셀트리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이후 이익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 17년 이익 급증 - 한국 금리 상승 전환, 대형주로 증시 관심 이전 - KOSPI 사상 최고치 돌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둔화 - 셀트리온 KOSPI 이전상장 	SK하이닉스(6위→2위) POSCO(10위→4위) 셀트리온(22위→3위)



Contents



Prologue	2020년, 5개 종목이 시총 3위에 이름을 올렸다	09
Part. 1	주도주의 압축, 그리고 변화의 시간	15
Part. 2	그 때 그 주도주, 그 땀 그랬지	27
	2007년 조선주, 3년치 일감이 있다	28
	2009년 자문사 7공주, 저평가된 2등주	32
	10~11년 화려했던 차화정, 현대사 3사 시총 120조원	36
	14~15년 화장품, 한미사이언스, 모바일게임, 매출성장주	40
	16~17년 POSCO → 반도체 → 셀트리온	44
Appendix	주요종목 시총순위	49



Prologue. 2020년, 5개 종목이 시총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증시 시총 3위의 의미 → 뜨는해와 지는 해

국내증시 시총 1위는 삼성전자다. 2000년 초 잠시 SK텔레콤에 1위 자리를 내어 준 적이 있지만, 이후 20년간 시총 1위 자리는 삼성전자였다. 지난 20년 동안 월 평균 시가총액 2위를 해본 종목은 모두 6종목이다. 이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씩 2위 자리를 유지했다. 삼성전자의 1위가 당연시 되듯, 시총 2위도 꽤나 오랜 시간 당연시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총 3위 종목, 조금 더 넓게는 3위~5위 종목에 주목해 봤다. 시총 3위는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지만, 시총 2위를 유지하다가 내려온 종목이 머무르는 순위이기도 하다.

01년 이후 시총 2위에 올랐던 종목

기간	종목	당시 3위 종목	비고
01년1월 ~04년7월	SK텔레콤	POSCO, 한국전력, 국민은행	00년 10월 말, SK텔레콤 시총 1위
04년8월 ~04년10월	POSCO	SK텔레콤	04년 11월, SK텔레콤 시총 2위
04년12월 ~07년1월	한국전력 국민은행	POSCO, 한국전력, 국민은행	05년 3월, POSCO 시총 2위 06년 12월, POSCO 시총 2위
07년2월 ~11년3월	POSCO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SK텔레콤, 현대차, KB금융	11년 1월, 현대차 시총 2위
11년4월 ~15년12월	현대차	POSCO,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한국전력	15년 6월, SK하이닉스 시총 2위 15년 7~8월, 한국전력 시총 2위
16년1월 ~16년11월	한국전력	현대차, SK하이닉스	
16년12월 ~현재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우) 셀트리온, 삼성Biologics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시총 Top 5, 뜨는 해와 지는 해

구분	종목	순위변동	비고
2004년	SK텔레콤	3위 → Out	2위에서 3위로 내려온 이후 꾸준한 순위하락
2014년	POSCO	3위 → Out	04년 2위→3위로 밀렸지만, 07년 2위로 복귀. 14년 Top 5에서 밀려난 이후 꾸준한 순위하락
2017년	한국전력	3위 → Out	삼성동 부지매각 이후 16년 2위에 복귀했지만, 17년부터 순위 급락
2007년	현대중공업	최고순위 3위	2007년 증시 주도주 4위와의 격차를 10조원 이상 벌리기도 함
2011년	현대차	최고순위 2위	2011년 증시 고점 돌파의 주도주 4년 넘게 2위를 지킨 POSCO를 3위로 밀어냄
2015년	아모레퍼시픽	최고순위 5위	2015년 화장품 갤럭시의 주도주 15년 연초 16위 → 6개월만에 5위로 순위 상승
2017년	SK하이닉스	최고순위 2위	12년 4월 SK그룹편입(당시 9위) 이후 순위 상승 반도체 호황 속 순위 급등
2018년	셀트리온	최고순위 3위	17년 하반기 제약/바이오 랠리 이끔 KOSPI 이전상장 기대감으로 주가 급등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순위 3위	코로나 이후 증시 회복과정에서 부각 8/20일, 단 하루에 불과했지만 시총 2위 등극
2020년	NAVER	최고순위 3위	19년 3월 시총 4위 → 19년 6월 13위로 하락 연초 이후 주도주로 활약, 빠른 순위 상승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0년, 시총 3위 5개의 종목

2020년, 모두 5개의 종목이 시총 3위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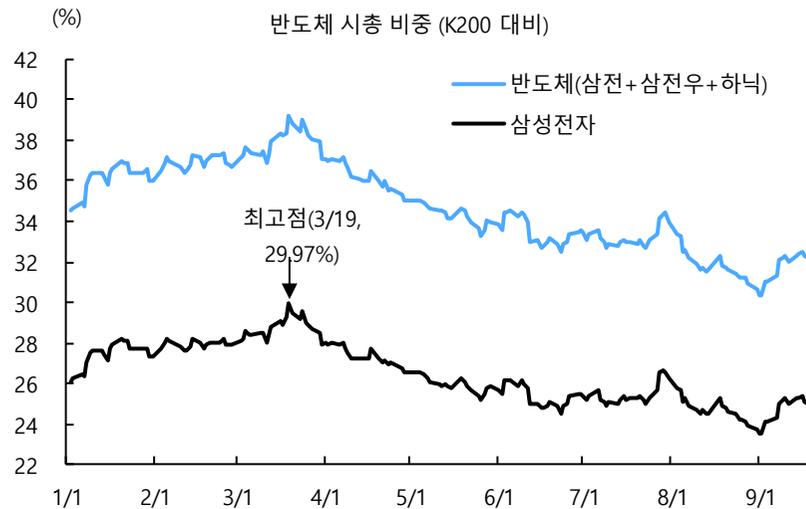
삼성전자(우),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위를 기록했던 날 3위로 내려앉은 SK하이닉스가 그들이다.

연초 반도체의 초강세, 그리고 코로나 이후 BBIG의 부각과 반도체의 상대적 약세가 모두 반영된 결과다.

연초만 해도 삼성전자의 시총비중 30% 돌파 여부가 이슈였지만, (3/19일 29.97%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3/19일 이후 반도체의 시총 비중은 낮아지기 시작했다. 2020년을 시총 3위로 시작한 삼성전자(우)는 현재 시총 7위 수준으로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2위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연초만 해도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 30%가 이슈였다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올해, 5개의 종목이 시총 3위에 랭크

일자	2위	3위	4위	5위
1/1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NAVER	삼성바이오로직스
3/19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4/10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우)	셀트리온
5/6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삼성전자(우)
7/10	SK하이닉스	NAVER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8/7	SK하이닉스	LG화학	NAVER	삼성바이오로직스
8/20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NAVER	LG화학
8/27	SK하이닉스	NAVER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9/8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LG화학
9/15	SK하이닉스	NAVER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9/20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LG화학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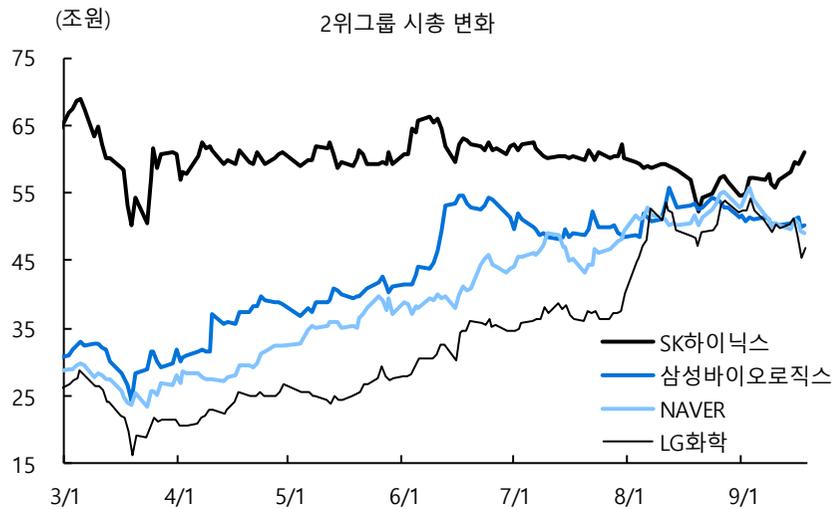
2위그룹의 순위만큼 흥미로운 6위그룹의 변화

8/22일 시총 2위자리에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31일 5위까지 순위가 하락했다. 그리고 NAVER, LG화학이 50조원 클럽에 합류하며 4개 종목이 2위그룹을 형성했는데, 최근 SK하이닉스의 시총이 60조원대로 상승하며 다시 앞서나가는 모습이다.

2위그룹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이 6~9위권 순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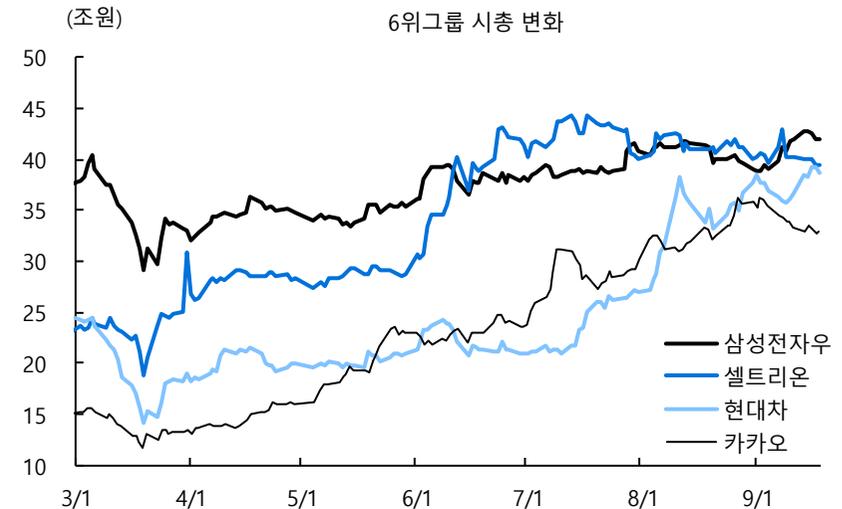
시총 3위에서 내려온 삼성전자(우), 시총 4위까지 올랐던 셀트리온이 6위권을 형성한 가운데, 현대차의 급부상, 카카오의 초강세가 더해지며 이들의 순위도 크게 변하는 중이다.

50조원을 전후로 4개의 종목이 2위 그룹을 형성, 최근 SK하이닉스가 차이를 벌임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0조원을 전후로 다수의 종목이 6위 그룹을 형성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시총 순위가 크게 하락한 종목

시총 순위가 크게 하락한 종목도 있다.

연초 3위였던 삼성전자 우선주는 8월 말 7위까지 순위가 하락했고(현재 6위),

10위로 시작한 POSCO는 현재 17위, 12위로 시작한 신한지주는 현재 25위까지 순위가 하락한 상태다.

올 초 18위였던 한국전력은 최근 26위에 랭크됐는데, 4년 전 시총 2위였음을 감안하면 가장 드라마틱한 순위 하락이다.

한편, 연초 6위였던 현대차는 7월 초 13위까지 순위가 하락했지만, 최근 상승을 통해 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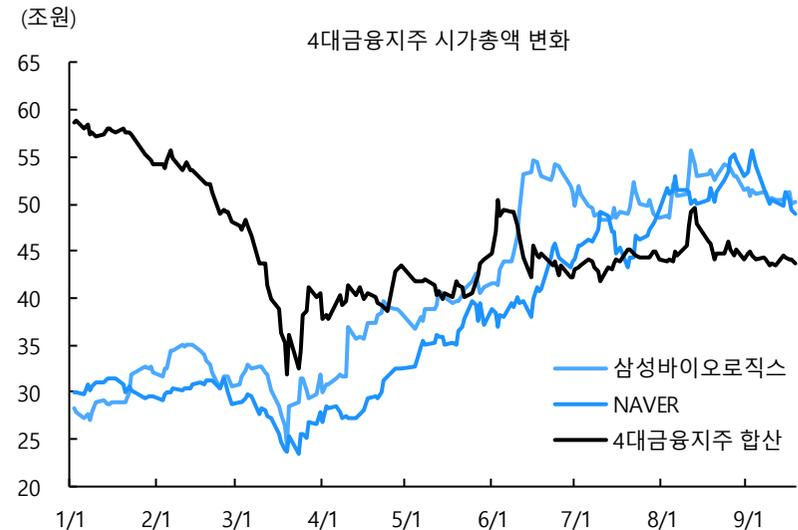
현대모비스(7위 → 15위 → 12위), 기아차(17위 → 24위 → 15위)도 순위가 하락한 이후 최근 회복한 모습이다.

시총 순위 하락이 눈에 띄는 종목

종목	연초	3/19	4/30	6/30	8/31	현재
삼성전자우	3	3	4	6	7	6
현대차	6	10	10	12	8	8
현대모비스	7	13	13	15	12	12
POSCO	10	14	14	17	17	17
삼성물산	11	9	9	10	13	13
신한지주	12	18	17	19	22	25
LG생활건강	14	7	8	11	11	11
SK텔레콤	15	11	12	16	14	14
SK	16	26	20	13	19	20
한국전력	18	20	16	22	25	26

주: 연중 상장된 SK바이오팜은 순위에서 제외.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연초 60조원에서 현재 45조원 수준으로 하락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Part. 1 주도주의 압축, 그리고 변화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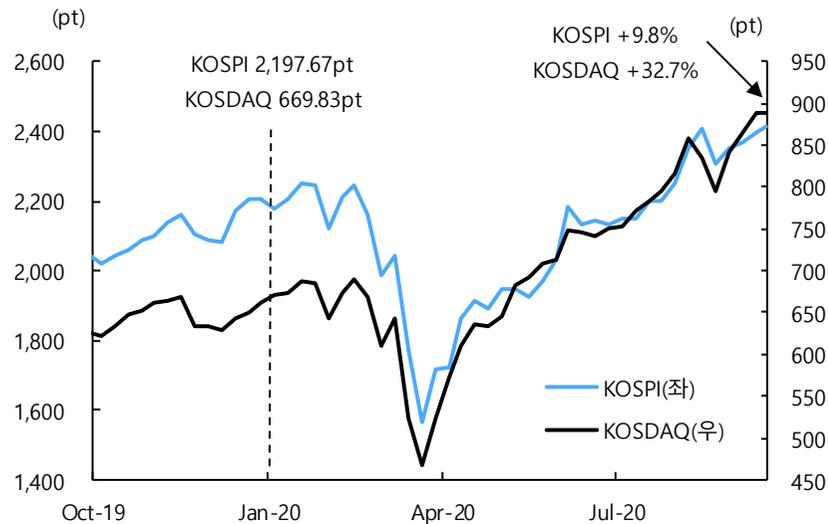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진 KOSPI, KOSDAQ

연초 2,200pt에서 시작한 KOSPI 지수는 3/19일 1,500pt를 하회했지만, 6월 2,200pt, 8월 2,450pt를 회복하며 빠르게 반등했다. KOSDAQ 지수의 회복은 더 빨랐다. 연초 670pt 에서 시작한 KOSDAQ 지수는 3/19일 428pt 까지 하락했는데, 9/16일 장중 900pt를 돌파하며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KOSPI 지수는 연초대비 +9.8%, KOSDAQ지수는 +32.7% 상승한 상태다.

미국 증시에서도 S&P 500지수 대비 NASDAQ지수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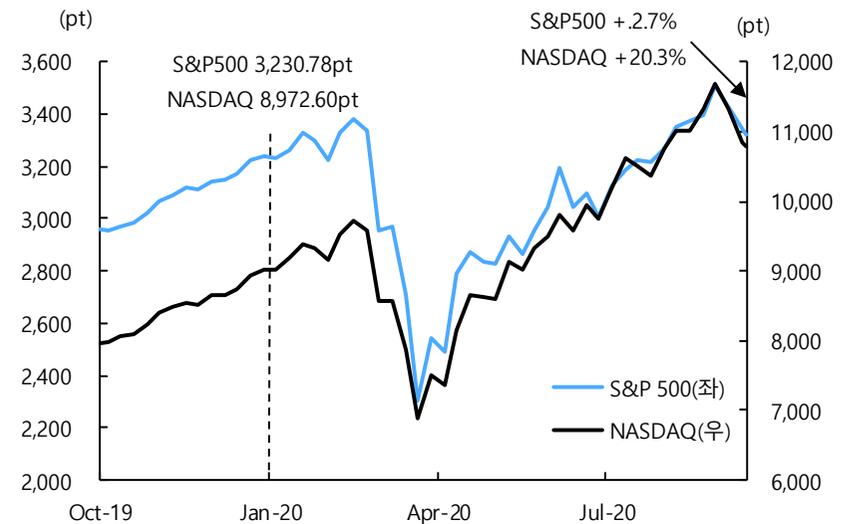
사상 최고치를 돌파중인 NASDAQ은 올 들어 +20.3% 상승, +2.7% 상승에 그친 S&P 500 지수 대비 Outperform 중이다. (9/20일 기준)

YTD 수익률, KOSPI +9.8%, KOSDAQ + 32.7%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증시에서도 NASDAQ의 상승세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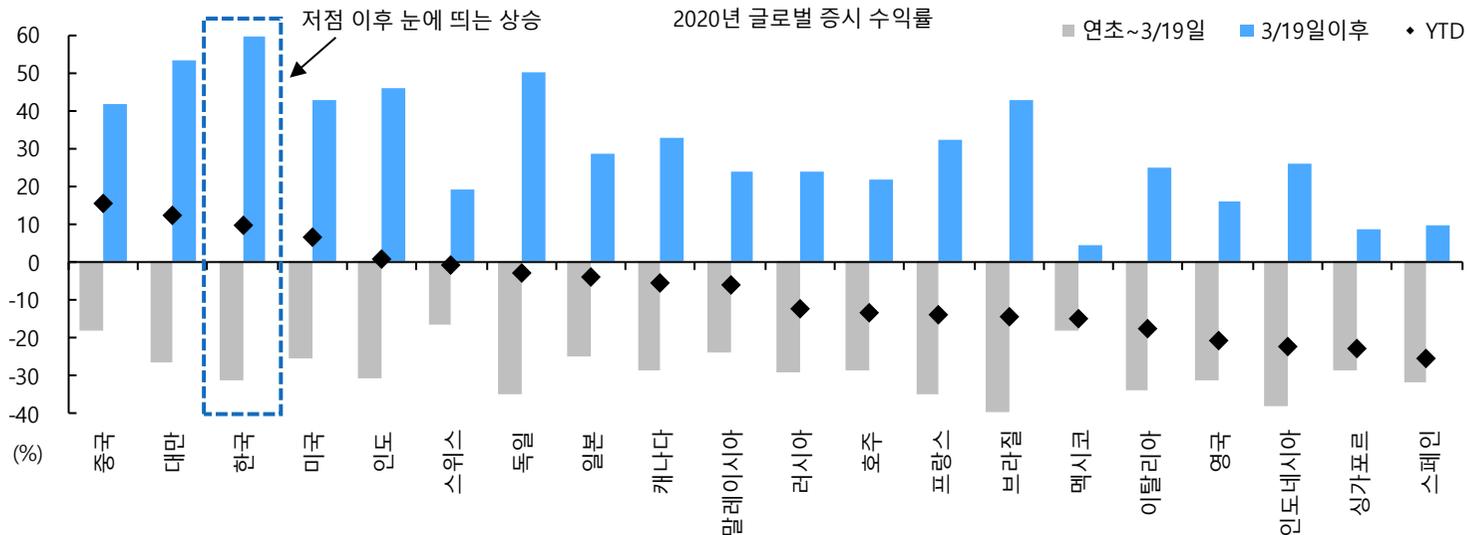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증시, 글로벌 증시 대비 가파른 상승

한국은 코로나의 차단에 성공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빠른진단,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해외 여행객도 줄면서 관련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했지만,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소비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빨랐다. 재난지원금의 지급도 소비 회복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한국증시의 상승과 Valuation의 할증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증시의 이익 Level은 낮아졌고, 이익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수출 역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한국증시 YTD 수익률 (+) 기록 중. 특히, 3/19일 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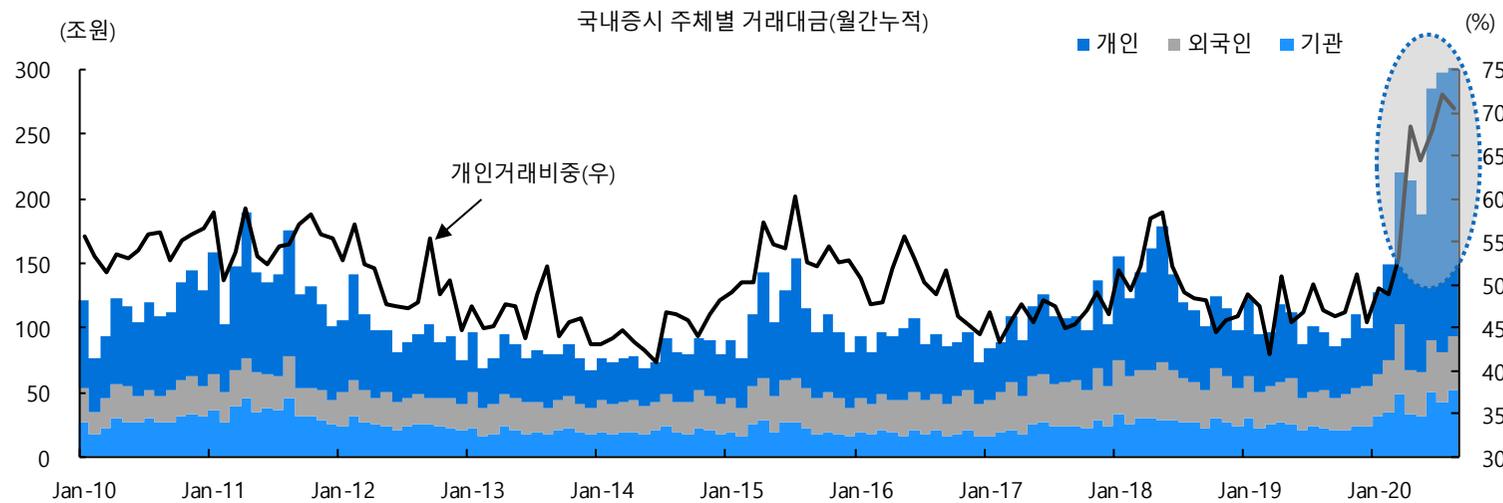
주: MSCI Index (자국통화 기준) 기준, YTD 수익률 9/16일 기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개인 유동성의 힘. 개인 거래 비중 급증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Fundamental이 아닌 수급이었다. 외국인이 매도로 일관한 가운데, 개인이 매수 주체로 나섰고, 증시 거래대금은 급증했다. 지난 3월 KOSPI 일평균 거래대금은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고, 9월까지 7개월 연속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6.2조원이었고, KOSDAQ의 14.8조원을 합치면 일평균 31조원이 거래되기도 했다.

그리고, KOSPI 개인 거래비중은 7월 72.1%, 8월 70.6%, 9월 72.5%로 크게 높아졌다. 3개월 연속 개인 거래비중이 70%를 상회한 것은 2002년 7월~9월 이후 처음이다. 한편, 8월 KOSPI 개인거래대금은 228.7조원 이었다. 당연히, 사상 최대치다.

거래대금 급증, 급증한 거래의 대부분은 개인 거래



주: KOSPI 기준 .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지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한 6개월 연장

우리나라 증시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처음은 08년 금융위기, 두번째는 미국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던 2011년이었다. 08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는 8개월 뒤 해제됐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13년 11월 해제됐다. 11년 유럽재정위기(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 공매도 금지는 3개월만에 해제됐다. 이번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6개월 연장될 경우 총 12개월 간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이는 앞선 2차례의 기간을 합친 것 보다는 길다.

증시가 회복했지만 공매도 금지는 연장됐고, 개인의 수급영향력은 크게 높아졌다. 참고로,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신용융자 잔고(16.8조원)은 연일 고점을 경신 중이다. 빌려서 파는건 막고, 빌려서 사는건 막지 않은 결과다.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신용융자잔고 급증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공매도 제한은 이번이 3번째, 최장기간 공매도 제한 중

	1차 (글로벌 금융위기)	2차 (유럽 재정위기)	3차 (코로나 19)
기간	08.10.01 ~ 09.05.31 (8개월)	11.08.10 ~ 11.11.09 (3개월)	20.03.16~ (12개월 예정)
금지 배경	- 리만 파산(9/15) - 美중시급락 (9/29일 -8.1%) - KOSPI 지수 1,400pt 하회	- 유럽 재정위기(11년 6월) - 美 신용등급강등 - KOSPI 급락 (8/2~9 6거래일 -17%)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 직전 1개월 KOSPI -21%
금지 기간 KOSPI 수익률	-3.0%	+5.6%	+40.7% (~20.09.18)
금지 시점	1,439.67pt	1,806.24pt	1,714.86pt
기간 중 저점	938.75pt	1,652.71pt	1,457.64pt
종료 시점	1,395.89pt	1907.53pt	2412.40pt(09/18일)
비고	금융주 공매도 지속	금융주 공매도 지속 (~13.11.13)	20.09.15 이후 6개월 기간 연장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넘치는 유동성과 쓸림현상의 심화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신규 청약을 위해 몰린 개인 자금은 각각 30조원, 58조원이었다. 그리고, 청약에 활용된 이후 환불된 자금 중 일부는 주식시장에 남았다. SK바이오팜 청약 후 50조원을 돌파한 고객예탁금은 카카오게임즈 청약 후 60조원까지 증가했다.

증시로의 자금유입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최근의 쓸림현상은 과열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증시의 등락과 무관하게 15% 이상 등락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대규모 IPO를 전후로 고객예탁금 크게 증가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증시가 안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 급등락 하는 종목의 개수는 많아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이상 상승	6	3	3	1	3	0
-2%이상 하락	2	2	4	0	3	0
3%이상 상승	2	0	2	0	0	0
-3%이상 하락	1	0	1	0	2	0
15% 이상 등락 예측수	314	266	330	294	302	170
15% 이상 등락 관찰수	553	288	399	382	489	271
차이	239	22	69	88	187	101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BBIG의 주도력은 이미 약해지고 있다

BBIG 7종목의 시총은 연초 146조원에서 8/27일 290조원까지 상승했고, (현재 267.5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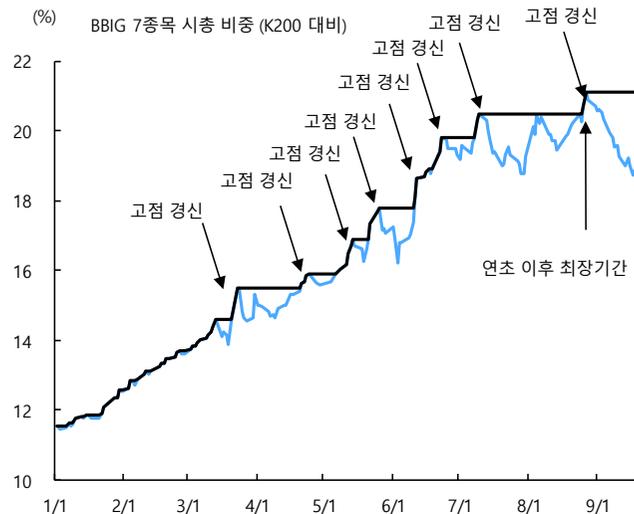
이들이 KOSPI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연초 11.5% → 8/27일 21.1%)

다만, 최근 들어 이들의 비중 상승 속도는 느려졌다.

7/10일 최고치를 경신(20.5%)한 이후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8/26)하기까지는 6주의 시간이 소요됐고, 8/27일 고점 이후 재차 하락 중이다.

구간별 수익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BBIG 7종목은 상반기 증시를 주도하며 수익률 상위 종목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지만, 7월 이후 수익률 상위 종목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는 장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BBIG 시총 비중, 고점을 경신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상반기 수익률 상위였던 BBIG 7종목, 7월 이후 수익률 상위 종목에서 사라짐

1~2월	수익률	3~4월	수익률	5~6월	수익률	7월 이후	수익률
한진칼	68.0	롯데지주	38.0	SK	59.9	두산중공업	210.2
삼성SDI	25.0	현대로템	36.4	대우조선해양	57.7	SK케미칼	162.3
엔씨소프트	20.0	오리온	31.5	카카오	45.4	한화솔루션	121.0
LG화학	15.9	녹십자	30.8	셀트리온	45.4	현대차	85.3
카카오	12.1	한진칼	29.5	포스코케미칼	45.0	넷마블	85.1
포스코케미칼	11.5	금호석유	28.8	삼성중공업	38.9	동서	80.8
농심	9.8	삼성바이오로직스	25.4	엔씨소프트	38.6	한미사이언스	76.9
일진머티리얼즈	8.4	SK네트웍스	24.7	더블유게임즈	37.6	한국금융지주	75.5
삼성바이오로직스	7.0	셀트리온	23.8	NAVER	35.2	녹십자	71.3
한샘	2.9	하이트진로	22.0	하이트진로	35.0	LS	70.1
삼성전기	0.8	대림산업	21.5	삼성바이오로직스	33.4	영진약품	68.5
SKC	0.8	신세계인터내셔널	18.8	SK이노베이션	33.3	종근당	67.7
고려아연	-2.5	현대해상	15.5	한화솔루션	32.3	만도	60.6
삼성물산	-2.8	현대엘리베이	15.1	LG이노텍	32.2	HMM	55.0
삼성전자	-2.9	롯데케미칼	14.9	LG화학	30.3	기아차	49.1

주: K200 종목 가운데 시총 1조 이상 종목 중 스크린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도주의 주도력 약화. 눈은 Next Stage로 향한다

7~9월 상승 종목의 key word는 '대안' 이다.

BBIG 7을 대신할 종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서 벗어나

제약/바이오 섹터 내 다른 종목이 관심을 받고 있고,

게임 업종에서도 엔씨소프트를 대신할 종목이 등장했다.

자동차주, 한화솔루션, 두산중공업의 상승도

배터리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BBIG의 주도력이 둔화되며 장의 흐름은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09년 하반기, 15년 하반기 시장의 모습이 지금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주도주(09년 7공주, 15년 화장품)의 주도력이 둔화되며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과 조정 이후의 흐름이었다.

유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개인의 시장 참여가 활발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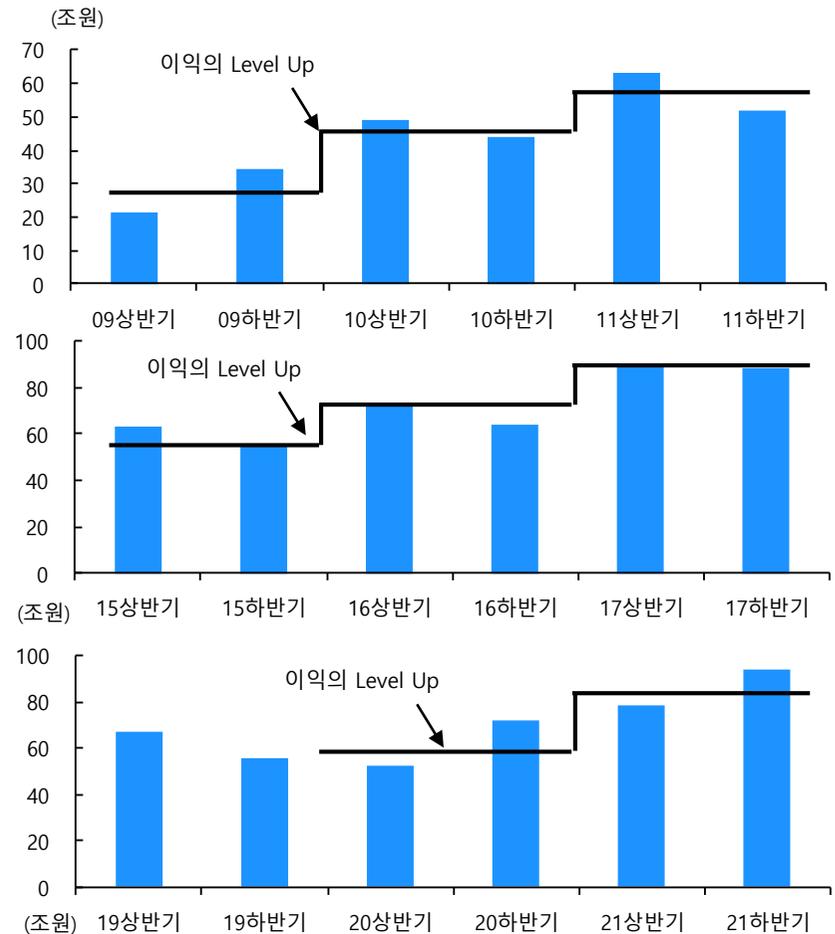
기간 조정 이후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발견된다.

새로운 주도주는 10년 하반기의 차화정, 16년 하반기의 반도체였다.

증시 전체 이익이 빠른 속도로 회복됐고,

그 과정에서 이익증가를 주도했던 업종이었다.

유니버스 200종목 영업이익의 변화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조정을 잘 버티고, 2) 조정 이후 Fundamental 이 주목되는

주도주의 압축, 교체 과정에서 장의 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 후 재상승을 염두에 둔다면, 1) 조정을 잘 버틸 것, 2) 조정 이후 시장의 컨셉을 고려한 종목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이익(Fundamental)에 관심을 뒤야 한다.

둘을 모두 만족하는 업종으로는 증권, 은행, 자동차, IT HW가 꼽힌다.

그 외 순수화학, 음식료 등도 Fundamental과 관련, 향후 눈여겨 봐야하는 종목군으로 제시한다.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조정 이후는 Fundamental에 주목

업종	반기 영업이익(억원)				연간 영업이익(억원)			PER(영업이익기준, 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019연간	2020연간	2021연간	12M Trail	12M FWD
증권	22,517	16,646	19,989	20,936	39,163	40,925	42,370	5.25	4.82
은행	109,975	85,500	99,944	81,291	195,475	181,235	189,195	2.92	2.93
자동차	31,903	24,249	20,437	37,928	56,152	58,365	74,164	11.45	7.91
자동차부품	18,493	21,548	7,310	19,634	40,041	26,944	40,900	13.85	9.54
반도체/장비	151,198	158,890	176,102	220,265	310,088	396,366	548,947	11.57	8.10
전자/부품	21,778	17,420	20,957	22,576	39,198	43,534	55,210	8.95	6.95
순수화학	16,385	11,255	8,353	16,264	27,640	24,618	38,716	15.84	9.43
음식료	16,556	17,874	21,697	21,159	34,430	42,856	45,550	8.22	7.57

주: 순수화학 = LG화학 제외한 화학업종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터지기 전까지는 버블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 Yogi Berra(192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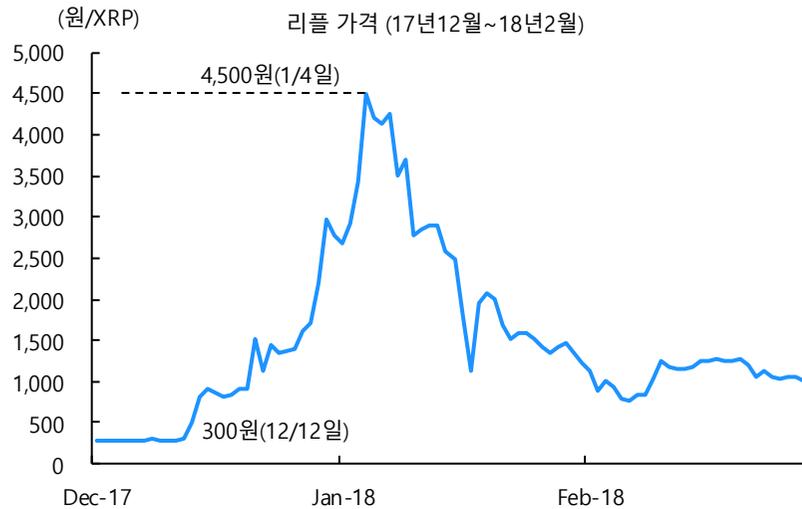
달리 말하면 끝이 나와, 비로서 끝임을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버블도 터지기 전에는 그것이 버블임을 알지 못한다. 오르는 중에는 버블을 논할 수 없다. 주가가 오르면, 어제의 고평가는 오늘의 저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꿈은 꾸기 나름이며, 꿈에는 버블이 없다. 그 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주가로 나타날 뿐이다.

그 평가가 과대했음을 시장이 인지하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 이전의 주가에 버블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버블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사후적 표현이다.

코인 광풍이 불던 시절, 리플 가격의 흐름



주: 빗썸 가격(일일종가) 기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풍제약 시가총액 10조원 돌파. 한미약품, 신라젠, 에이치엘비 보다 높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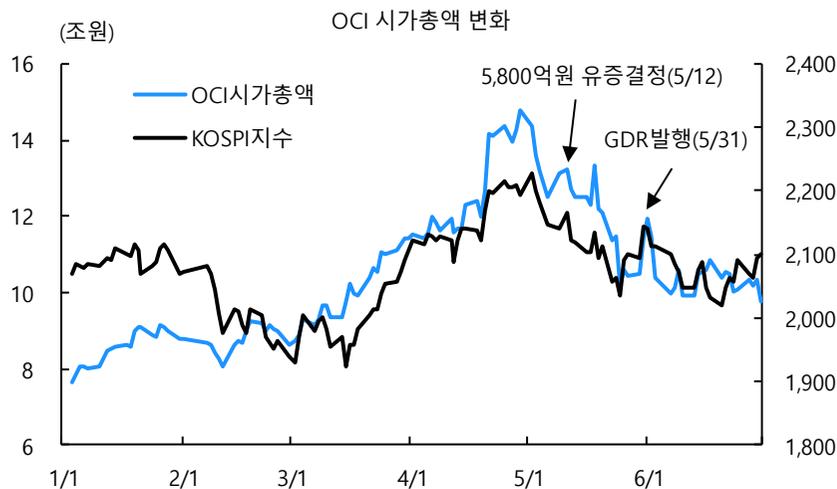
주: 장종고가 기준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하지만, 아주 작은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터지고 나서야 버블임을 알게 된다

버블이 터지는 순간에도, 시장 참여자들은 그것이 버블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주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 건전한 조정이 되는 것이고, 주가가 하락을 지속하게 되면 버블 붕괴라는 표현을 붙일 뿐이다.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상승한 것이 아니라면, 하락에도 뚜렷한 이유가 없다. 이미 Fundamental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하락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트리거가 됐던 이벤트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 빌미가 된 이벤트는 아주 사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1년 OCI의 소규모 유상증자(GDR 발행), 18년 셀트리온의 KOSPI 이전 상장 등은 Fundamental과는 크게 상관없는 이벤트였지만, 이를 계기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졌던 기억이 있다.

OCI, GDR 발행 이후 급락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셀트리온, KOSPI 이전 상장 이후 달라진 흐름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분할, Fundamental과는 무관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애플과 테슬라에 액면분할 이벤트가 있었다. 테슬라에는 소규모 유상증자와 S&P 500 편입 불발 이벤트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의 분사를 발표, 이를 전후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바 있다.

기업의 Fundamental과는 상관없는 사소한 이벤트라 치부할 수도 있지만, 향후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하락의 트리거가 된 이벤트로 꼽힐 수도 있다. 사소한 이벤트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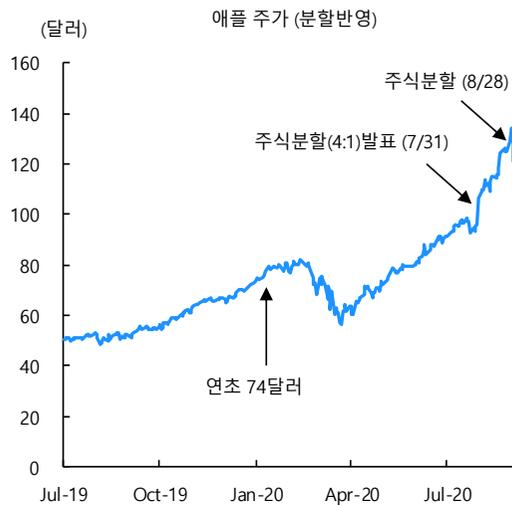
오래 전 얘기지만, 2000년에 액면분할했던 쉐컴이 당시 가격을 회복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19년 이었다.

쉐컴 주가, 99년 연말 수준 회복에 19년 소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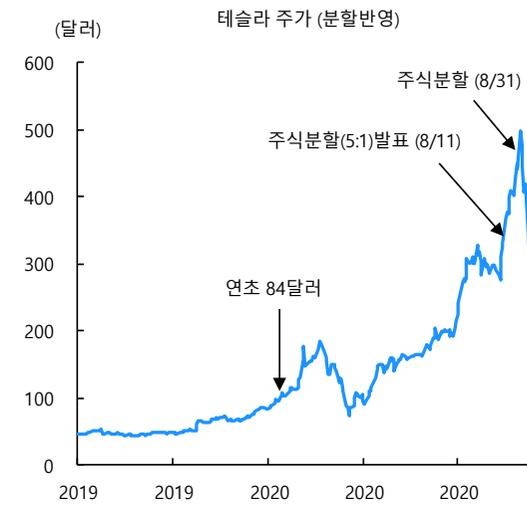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애플, 분할 이후 하락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테슬라, 분할 이후 변동성 높아진 모습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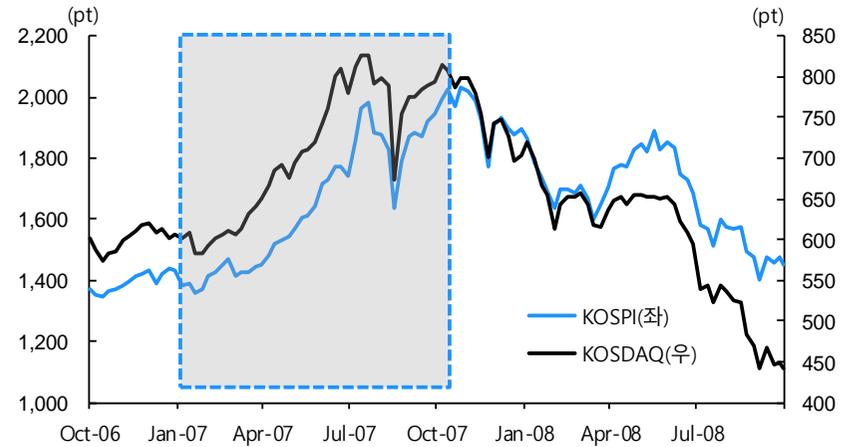
Part. 2 그 때 그 주도주, 그 땐 그랬지

2007년	조선주, 3년치 일감이 있다	28
2009년	자문사 7공주, 저평가된 2등주	32
10~11년	화려했던 차화정, 현대사 3사 시총 120조원	36
14~15년	화장품, 한미사이언스, 모바일게임, 매출성장주	40
16~17년	POSCO → 반도체 → 셀트리온	44

2007년

조선주, 3년치 일감이 있다

기간	2007년 1월~10월
주도업종 / 테마	조선, 해운, 기계, 건설
시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물동량 증가하며, 조선-해운 초강세 - 유가 90\$ 돌파, BDI 지수 11,000pt 돌파 - 07년 11월 주식형펀드 수탁고 100조원 돌파 - 조선주주 급증, 실적 성장 뚜렷
하락 트리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브프라임 모기지 우려 부각되며 증시 하락 전환 - 조선주 시총 비중 하락하며, 주도력 약화



주요 종목 시총 순위 변화

종목 / 일자	2006년												2007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대중공업	13	15	14	11	10	7	5	5	5	4	3	3	3	3		
대우조선해양	29	29	30	28	27	26	25	20	17	17	17	22	26	29		
삼성중공업	30	32	32	31	30	29	21	17	15	16	18	20	24	28		
STX조선해양	107	102	98	92	85	78	67	62	65	57	59	59	57	61		
두산중공업	37	38	34	34	29	24	23	21	21	22	22	12	10	14		
현대상선	53	51	56	55	56	48	37	39	43	34	37	45	47	44		
대한해운	167	163	161	150	146	137	126	121	115	95	88	79	84	95		
동양제철화학	112	112	114	113	104	81	69	71	73	74	63	49	51	45		
LS	90	92	97	101	94	85	82	79	76	73	70	62	65	69		
POSCO	4	2	3	2	2	2	2	2	2	2	2	2	2	2		
한국전력	3	3	2	4	4	4	4	4	4	3	4	4	4	4		
국민은행	2	4	4	3	3	3	3	3	3	5	5	5	5	5		
하이닉스	8	8	8	9	9	9	11	12	9	8	11	16	22	17		
롯데쇼핑	11	11	11	14	16	16	15	15	18	18	16	18	19	21		

상승률 상위 주요 종목

코드	종목	수익률	최고순위
A010060	OCI	514.7	45
A005880	대한해운	459.5	79
A067250	STX조선해양	331.6	57
A009540	한국조선해양	271.1	3
A044490	태웅	265.8	105
A034020	두산중공업	220.1	10
A004800	LS	175.7	84
A010620	현대미포조선	170.1	36
A004020	현대제철	154.0	33
A010140	삼성중공업	132.1	15
A011200	HMM	128.1	34
A005490	POSCO	119.4	2

주: 월간 평균 시총 기준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가와 BDI지수의 상승, 수주잔고가 쌓이며 치솟았던 신조선가

2007년, 한국증시는 사상 최초로 2,000pt를 돌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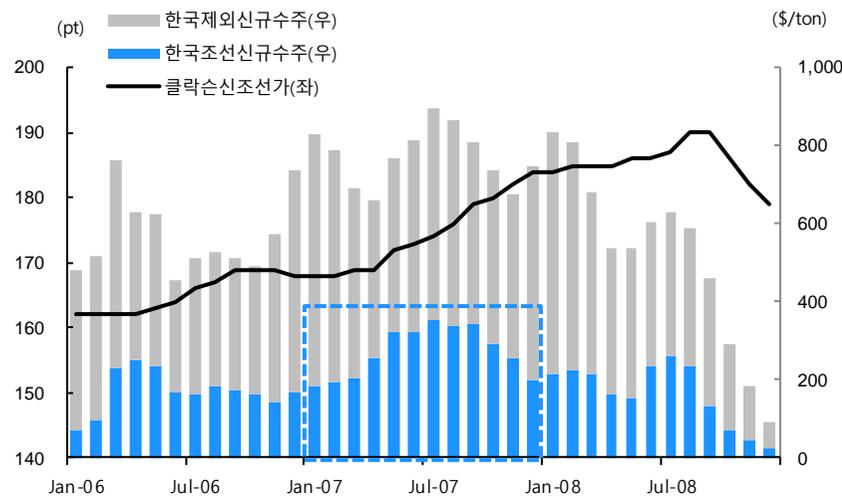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한국증시에서는 소재, 산업재 섹터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

증시 상승에 힘입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100조원을 돌파했다. 당시, 주식형 펀드가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기도 했다.

POSCO의 시총 2위 등극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조선주의 급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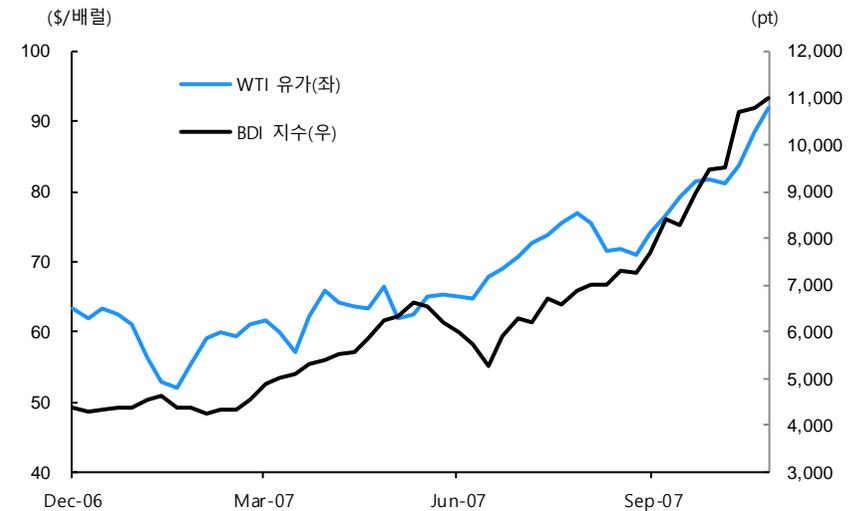
유가 상승, 운임 상승은 글로벌 조선 수주를 확대시켰고, 그 중 한국의 수주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선가 급등 속 한국 조선 수주 규모 빠르게 확대



주: 분기말 전망치 대비 실제치가 높았던 종목의 EWI 수익률.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가의 상승, 운임의 상승 또한 조선주 강세의 이유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조선주 실적의 급상승. 현대중공업 시총 3위의 이유

수주의 급증이 실적으로 확인 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5대 조선주의 매출액은 05년 23.7조원에서 08년 48.4원으로 높아졌고, 영업이익도 4조원대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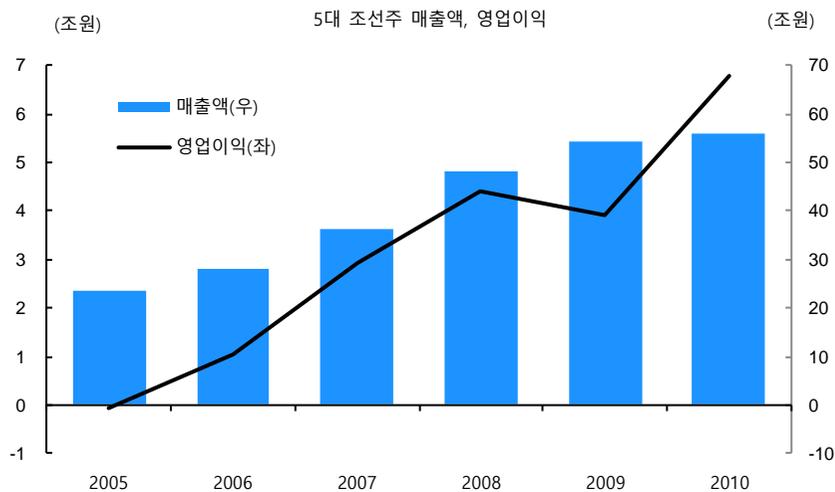
빈 도크는 없었고, 3년치 수주물량이 쌓여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이에 목표주가는 3년 이상의 미래 이익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은 시총 3위로 올라섰고, 삼성중공업(15위), 대우조선해양(16위) 등도 시총 10조원을 넘기는 등 뚜렷한 순위 상승을 보였다.

태웅, 현대소재, 용현BM, 평산 등 조선 기자재 업체의 시총도 크게 높아졌다. 당시 태웅은 코스닥 시총 4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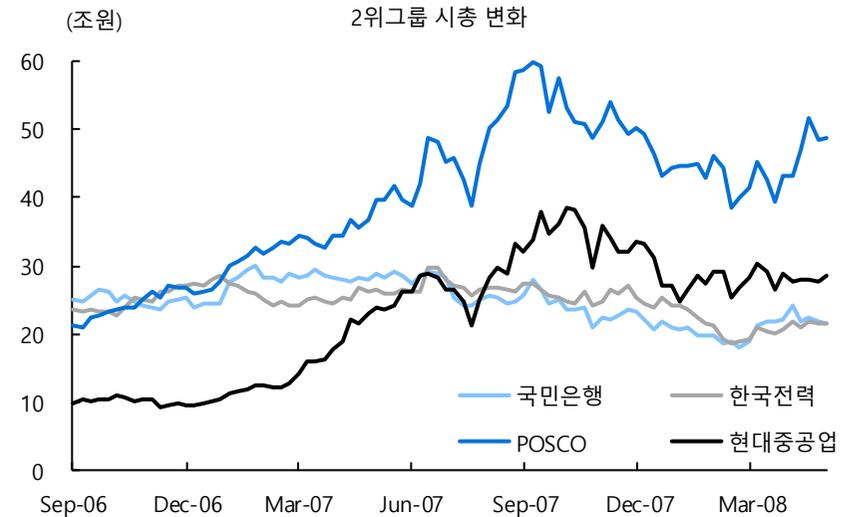
한편,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한해운 등 해운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수주의 급증이 실적으로 확인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POSCO의 시총 2위 등극보다 더 눈에 띈 것은 현대중공업의 시총 3위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07년 10월 조선주 비중 11.5% → 08년 1월 7.8%

5대 조선주 + 해운주의 시총비중은 07년 1월 5.0% 에서 10월 11.5% 까지 상승했다.
 당시 07년 5월 이후 외국인이 매도로 일관했지만, 기관이 매수주체로 나서며 증시는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도 10월말 900원까지 하락하는 등, 원화의 강세가 이어졌다.

07년 10월, 서브프라임 우려가 불거지며 증시는 추가 상승에 실패했고, 조선주의 주가는 증시를 Underperform 하기 시작했다.
 조선주에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도주로서의 주도력은 약화됐고, 증시 흐름도 달라졌다.
 3개월 후인 08년 1월, 조선+해운주의 시총 비중은 7.8%까지 낮아졌다. 그리고 08년 3월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선, 해운, 기계주 시총 비중 변화



주: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현대상선, 두산중공업 등 7종목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0월 말 서브프라임 우려 부각되며, 환율, 증시의 흐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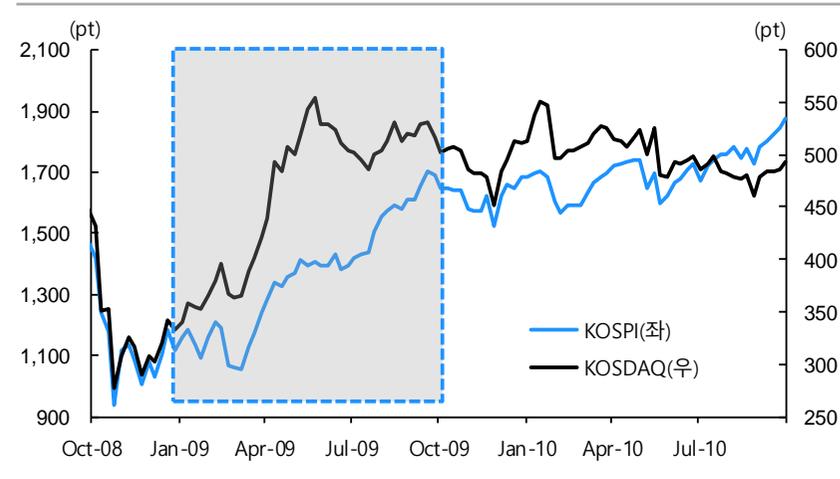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09년

자문사 7공주, 저평가된 2등주

기간	2009년 1월~9월
주도업종 / 테마	저평가된 2등주
시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로 급락했던 증시의 회복 과정 - TARP, QE1 등 시행으로 유동성 공급, 연준자산 급증 - 금융위기 이후 실적 턴어라운드. 저평가된 2등주에 대한 관심
하락 트리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장세 실적장세로의 이전 → 주도주 압축 - 차화정으로의 관심 이전 → 주도주 변화



주요 종목 시총 순위 변화

종목 / 일자	2008년												2009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LG화학	26	27	24	21	20	20	16	15	18	15	10	10	10	9	26	27	24	21	20	20	16	15	18	15	10	10	10	9
하이닉스	34	40	40	30	28	21	24	21	17	13	15	15	14	13	34	40	40	30	28	21	24	21	17	13	15	15	14	13
삼성전기	49	54	50	45	39	41	43	38	35	34	27	28	28	26	49	54	50	45	39	41	43	38	35	34	27	28	28	26
기아차	39	55	55	49	50	46	38	35	32	31	33	32	29	28	39	55	55	49	50	46	38	35	32	31	33	32	29	28
삼성SDI	40	52	48	47	48	43	39	36	37	35	28	33	33	33	40	52	48	47	48	43	39	36	37	35	28	33	33	33
삼성테크윈	54	60	60	65	60	58	49	47	44	45	39	38	38	38	54	60	60	65	60	58	49	47	44	45	39	38	38	38
현대차	10	11	11	9	7	7	8	5	6	3	3	4	4	3	10	11	11	9	7	7	8	5	6	3	3	4	4	3
LG전자	7	8	9	10	6	6	6	4	4	6	7	7	7	7	7	8	9	10	6	6	6	4	4	6	7	7	7	7
KB금융	9	7	6	6	9	9	5	7	5	4	4	3	3	4	9	7	6	6	9	9	5	7	5	4	4	3	3	4
신한지주	5	6	7	8	8	8	7	8	7	7	5	6	5	5	5	6	7	8	8	8	7	8	7	7	5	6	5	5
엔씨소프트	107	98	92	84	75	61	48	48	51	62	54	57	56	57	107	98	92	84	75	61	48	48	51	62	54	57	56	57
한국전력	4	3	3	3	3	3	3	3	3	5	6	5	6	6	4	3	3	3	3	3	3	3	3	5	6	5	6	6
SK텔레콤	3	4	4	4	4	5	9	9	9	9	11	9	9	10	3	4	4	4	4	5	9	9	9	9	11	9	9	10
현대중공업	6	5	5	5	5	4	4	6	8	8	9	11	12	12	6	5	5	5	5	4	4	6	8	8	9	11	12	12

상승률 상위 주요 종목

코드	종목	수익률	최고순위
A046890	서울반도체	410.7	81
A011070	LG이노텍	288.3	73
A103140	풍산	222.9	153
A036570	엔씨소프트	216.2	48
A012450	삼성테크윈	198.9	39
A009150	삼성전기	195.0	27
A006400	삼성SDI	190.6	28
A000660	하이닉스	186.7	13
A086280	현대글로벌비스	162.8	44
A005380	현대차	159.7	3
A000270	기아차	146.6	31
A051910	LG화학	126.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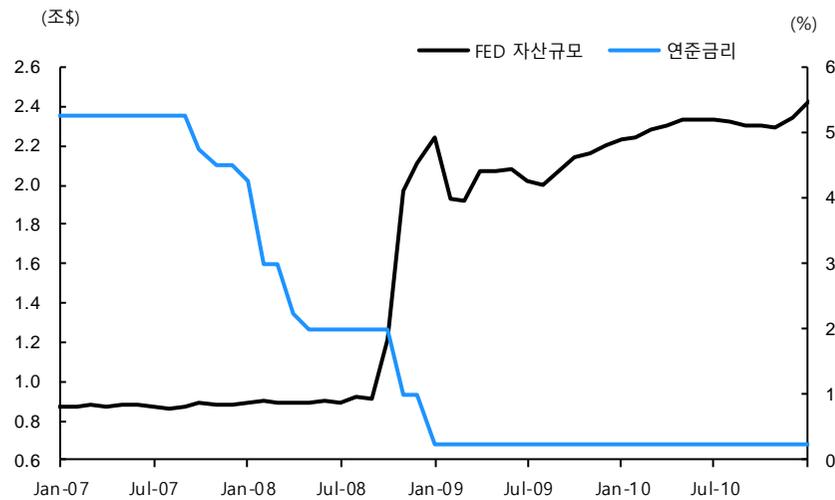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동성의 힘, 1,000pt → 1,700pt까지의 반등

금융위기를 겪으며 KOSPI 지수는 1,000pt 아래로 하락했다. 09년 들어 소폭 반등했지만, 3월에 다시 한번 1,000pt를 하향 돌파 했다.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 것은 이 때부터 였다. 유동성의 확대가 글로벌 공통현상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는 유레없는 수준의 완화 정책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FED 자산의 급증은 눈에 띌 정도였다. FED의 의지를 확인한 시장은 그제서야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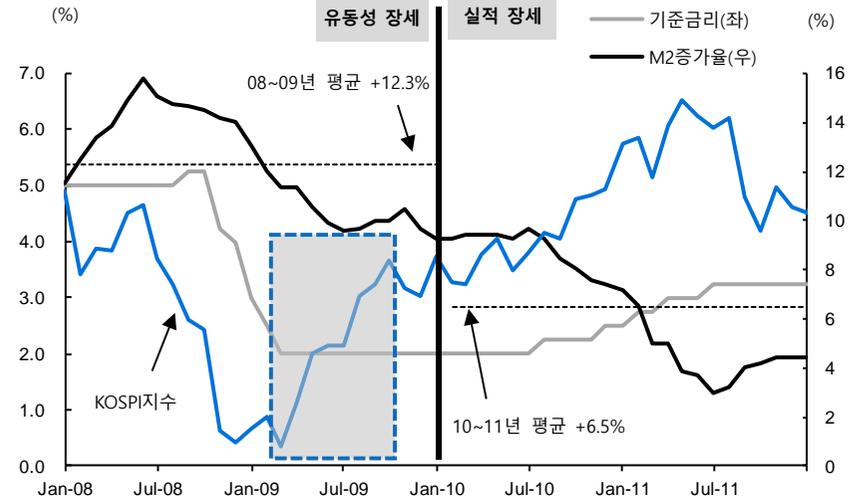
한국의 금리도 빠르게 낮아졌고, M2 증가율을 높이며 한국에서도 유동성의 확대가 이뤄졌다. 한국증시의 상승도 유동성의 힘이었다. 3월 초 1,000pt를 하회했던 KOSPI는 9월, 1,700pt로 수직상승했다.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와 대규모 자산 매입으로 유동성 공급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증시 또한 유동성의 힘으로 빠른 회복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저평가된 2등주, 자문사 7공주라 불린 7개의 종목

이 과정에서 돋보였던 종목은 이른바 자문사 7공주라 불렸던 하이닉스, 삼성테크윈, 제일모직, 기아차, LG화학, 삼성전기 등 7개 종목이었다. 이들의 저평가된 2등주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이들의 실적은 뚜렷한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미리 반영한 주가 상승이었다. 빠른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Valuation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해당 기간, 이들의 시총 비중은 9개월만에 4.0% 에서 7.5%로 높아졌고, 삼성테크윈(59위→39위), 삼성전기(53위→27위), 하이닉스(39위→15위), 기아차(54위→33위), LG화학(26위→8위) 등의 순위 상승이 눈에 띄었다.

7공주 시총 비중, 9개월만에 4.0%에서 7.5%로 높아짐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7공주 수익률과 시총 순위 변화

코드	종목	시가총액 (억원)		기간 수익률	시총순위	
		08년말	09년9월		08년말	09년9월
A012450	삼성테크윈	21,945	49,623	206.6	59	39
A009150	삼성전기	24,873	75,814	204.8	53	27
A000660	하이닉스	30,793	116,746	195.5	39	15
A000270	기아차	22,744	70,882	184.0	54	33
A006400	삼성SDI	25,057	67,882	170.9	51	28
A051910	LG화학	53,420	145,134	116.9	26	8
A001300	제일모직	20,100	25,550	27.1	66	69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7공주의 균열(주도주의 압축), 그리고 차화정으로의 관심 이동

7공주는 어느 한 업종에 편중되지 않았다. 화학,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품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있었던 것이 특징이었다. 이들의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이들의 시총 비중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고, 증시는 1,550~1,750의 박스권이 1년간 지속된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1년 남짓 진행된 당시의 박스권은 짧은 기간 조정으로 보이지만, 3개월간 70%의 상승 이후 진행된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지루한 박스권이기도 했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이전 과정에서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과 그렇지 않았던 종목의 차별화가 진행된 것이다. IT의 탈락과 차화정으로의 주도주 이전이 진행된 시기였다.

7공주의 전성기는 09년 9월까지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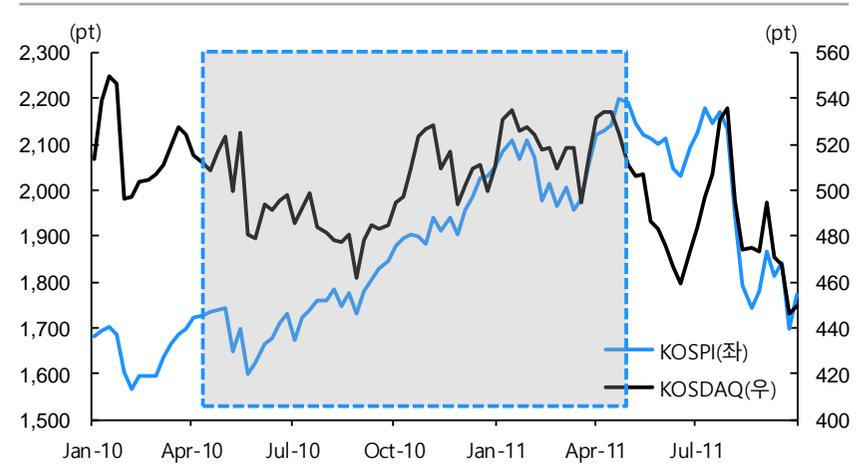
차화정에 편입된 LG화학, 제일모직, 기아차 vs 편입되지 못한 4종목



주: 차화정(OCI, 한화케미칼, 현대차,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0~11년 화려했던 차화정, 현대차 3사 시총 120조원

기간	2010년 4월~2011년 4월
주도업종 / 테마	자동차, 화학, 정유
시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유가 급등 (100\$ 돌파) - 유가 급등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 높아진 시기 -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이전
하락 트리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IGS 재정우려 부각 - 미국 신용등급 강등 (11년 8월) - OCI 유상증자 및 GDR발행 (11년 5월)



주요 종목 시총 순위 변화

종목 / 일자	09년		2010년					2011년						
	12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현대차	3	3	3	3	3	3	3	2	3	3	2	2	2	2
기아차	28	26	18	15	16	11	9	9	8	7	7	7	7	7
현대모비스	8	9	11	8	7	5	5	5	6	5	5	5	4	4
금호타이어	233	297	294	287	225	214	154	125	121	119	122	119	124	119
LG화학	9	11	9	7	5	6	6	6	5	6	6	6	6	6
OCI	39	44	43	42	31	33	39	35	32	27	20	22	26	29
호남석유	56	53	50	44	42	35	32	26	25	20	21	20	20	18
금호석유	155	181	139	119	108	104	94	78	68	63	57	53	52	54
SK에너지	18	18	17	20	17	15	12	12	14	11	10	10	9	10
현대중공업	12	7	7	10	8	4	4	4	4	4	4	4	5	5
POSCO	2	2	2	2	2	2	2	3	2	2	3	3	3	3
KB금융	4	6	6	9	10	9	8	8	9	9	9	9	10	9
한국전력	6	4	4	5	9	10	11	11	11	13	14	13	12	12
LG전자	7	8	8	13	11	12	13	13	12	14	16	16	19	20

상승률 상위 주요 종목

코드	종목	수익률	최고순위
A011780	금호석유	713.1	51
A005850	에스엘	253.4	160
A064420	케이피케미칼	252.1	82
A009830	한화케미칼	240.9	41
A001430	세아베스틸	229.8	103
A011170	호남석유	229.2	20
A000270	기아차	221.3	7
A010950	S-Oil	164.0	13
A078930	GS	142.1	34
A012330	현대모비스	135.8	4
A009540	현대중공업	131.3	4
A051910	LG화학	119.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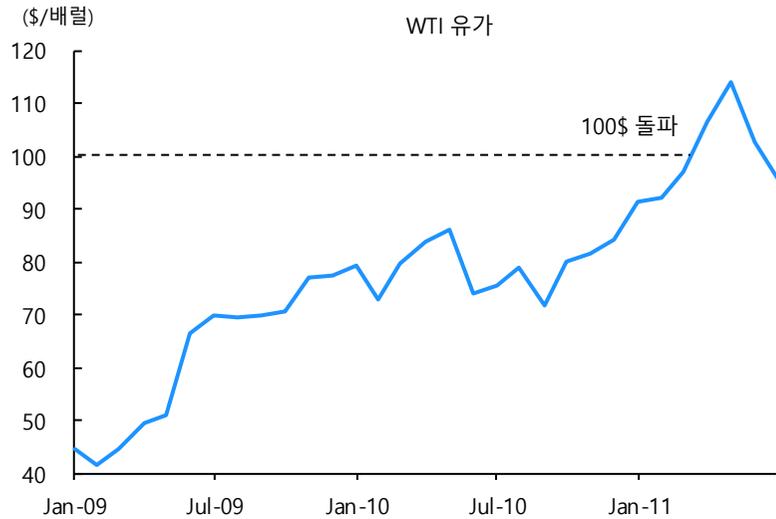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가 100\$, 연비의 현대차, 그리고 태양광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는 빠른 회복을 보였다. 유가는 100\$를 회복했고, 정유, 화학 업종이 수혜주로 꼽혔다. 유가 급등으로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연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은 현대차는 글로벌 MS를 크게 늘리며 약진했다.

정유, 화학, 자동차(부품) 관련주로 이번 자료에서 포함시킨 종목은 모두 14종목이다 (현대차 3사,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LG화학, OCI, 호남석유, 제일모직, 한화케미칼, 금호석유, 케이피케미칼, SK에너지, S-Oil) 이들 외에도 GS, 대림산업 등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업종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계산에서는 제외했다.

09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본격화, 유가 급등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화정 시총 비중 크게 높아짐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보인 차화정, 상승의 이유는 실적

10년 4월 13% 내외였던 이들의 시총 비중은 11년 4월 24%까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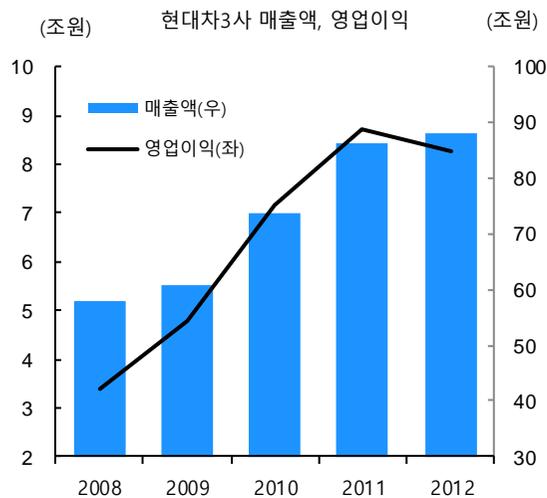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이전 과정에서 차화정의 실적 개선은 단연 눈에 띄었다.

현대차 3사의 매출액은 08년 58조원에서 11년 86조원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3.4조원에서 8.7조원으로 높아졌다(개별기준).

현대차의 시총 2위 등극, 그리고 현대차 3사의 시가총액이 120조원을 넘어선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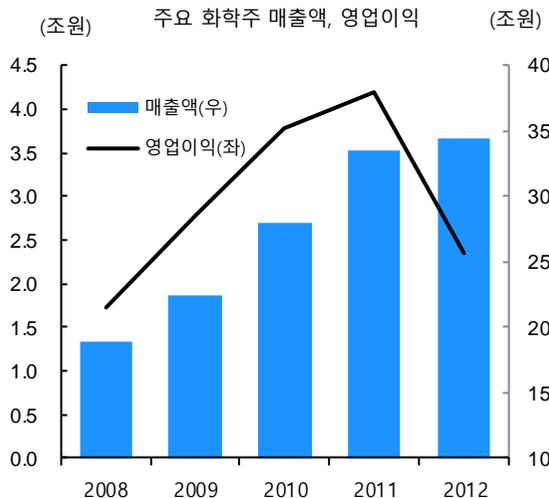
화학, 정유 역시 뚜렷한 성장이 확인됐다.

현대차 3사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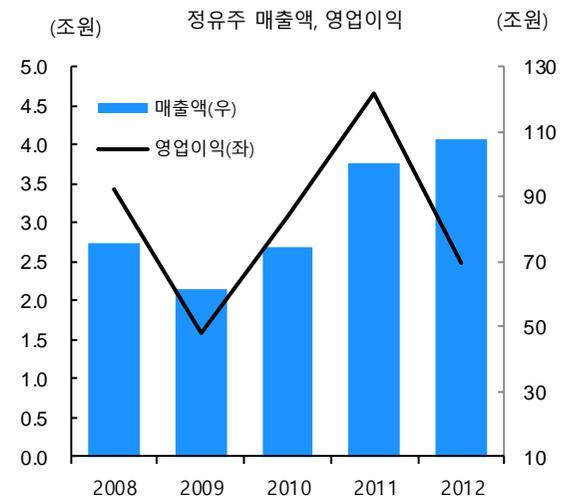
주: 현대차+기아차+모비스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화학주 실적



주: LG화학+롯데케미칼+금호석유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정유주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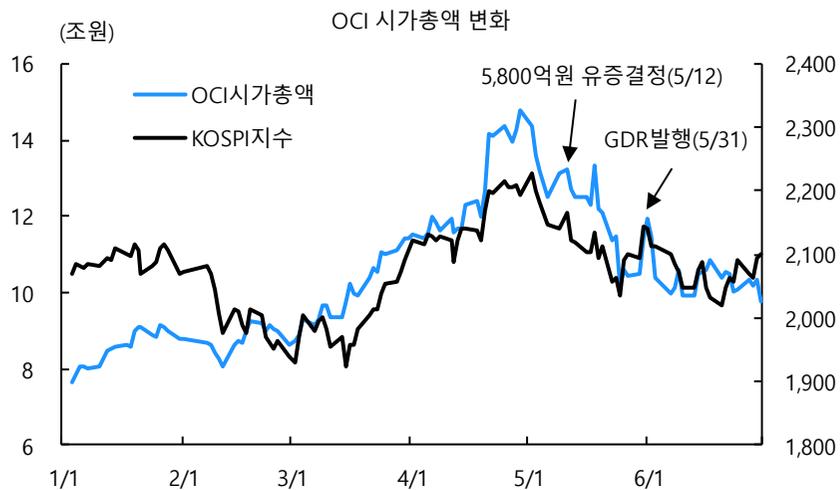
주: SK에너지+S-Oil (SK에너지는 물적분할로 연결재무제표 사용)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핑계를 찾던 시장에 나타난 의외의 트리거,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부각

KOSPI 지수는 연일 고점을 경신했다. 삼성전자, POSCO가 부진했지만, 차화정의 랠리가 이어진 덕분이었다. 하지만, 2011년 4월 이후 KOSPI 지수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다. PIIGS로 불리는 유럽 재정위기가 부각됐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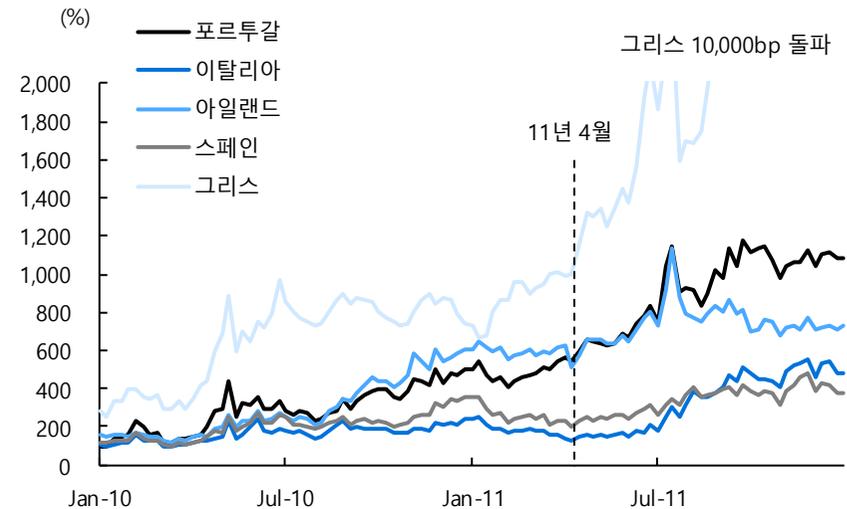
주도주에도 균열이 생겼다. 증시 고점 이후 차화정의 시총 비중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하락의 빌미가 된 사건이 등장한다. 당시, 시총 15조원에 육박하며 20위권에 진입했던 OCI가 5,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GDR발행)를 결정한 것이다. 시총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은 규모의 유상증자 였지만, 핑계를 찾던 시장에 하락의 트리거가 되기엔 충분했다.

OCI의 유상증자, 당시 시총 규모를 고려하면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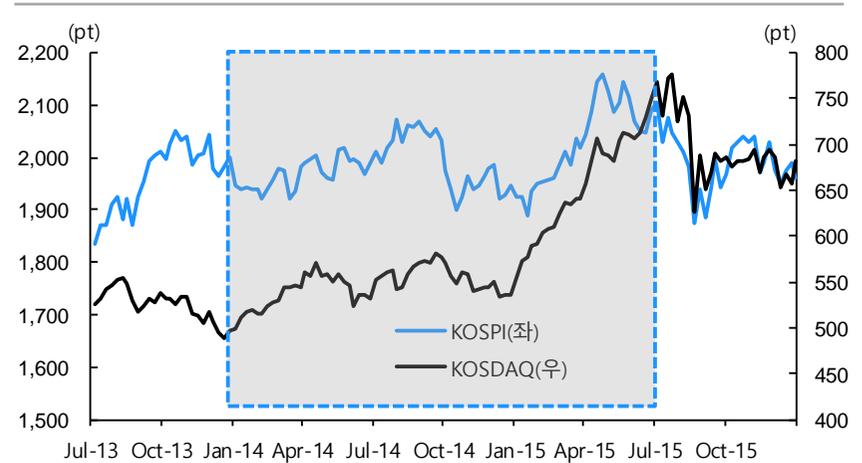
PIIGS 국가의 CDS 프리미엄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4~15년 화장품, 한미사이언스, 모바일게임, 매출성장주

기간	2014년 1월~2015년 6월
주도업종 / 테마	화장품, 기술수출주, 모바일게임, 매출성장주
시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 테이퍼링 착수(13년 12월) → QE3 종료(14년 10월) - 유가 급락 (14년 7월 105\$ → 15년 3월 45\$) - 후강통 시행(14년 11월). 중국증시 급등 - 중국인 입국자수 600만명 돌파(2014년)
하락 트리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RS 유행 (15년 6월) - 위안화 평가절하 (15년 8월) - 아모레퍼시픽, 액면분할 (15년 4월) 이후 상승 속도 둔화



주요 종목 시총 순위 변화

종목 / 일자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12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아모레퍼시픽	46	43	40	29	25	20	14	16	14	9	6	5	8	5	
아모레G	71	62	58	57	44	33	25	29	23	20	17	18	21	23	
LG생활건강	30	27	34	32	34	34	27	25	22	17	21	20	19	16	
한미사이언스	177	187	180	196	168	200	185	187	192	101	54	31	41	33	
한미약품	154	149	136	150	159	188	190	178	173	82	59	66	66	39	
메디톡스	157	155	162	171	194	169	135	124	98	114	84	84	91	86	
삼성물산	-	-	-	-	-	-	-	13	12	10	5	6	4	4	
삼성에스디에스	-	-	-	-	-	-	-	7	11	11	8	7	7	12	
NAVER	8	6	6	6	5	7	6	8	8	8	11	13	14	11	
SK텔레콤	13	13	12	12	12	10	9	11	7	6	10	9	11	14	
한국전력	11	9	7	7	7	6	4	4	4	4	4	2	3	3	
SK하이닉스	6	5	4	4	3	3	3	3	3	3	2	4	5	7	
현대차	2	2	2	2	2	2	2	2	2	2	3	3	2	2	
기아차	5	7	8	8	8	8	10	12	13	14	14	12	9	8	

상승률 상위 주요 종목

코드	종목	수익률	최고순위
A008930	한미사이언스	613.9	54
A078340	컴투스	471.8	110
A009240	한샘	455.4	49
A079430	현대리바트	369.2	203
A069080	웰젠	368.9	161
A005610	SPC삼립	358.1	101
A128940	한미약품	322.6	59
A002790	아모레G	305.9	17
A090430	아모레퍼시픽	303.0	5
A161890	한국콜마	269.7	113
A086900	메디톡스	201.0	84
A068270	셀트리온	107.5	30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후강통 시행과 중국증시 급등. 한국에서는 KOSDAQ의 강세 두드러짐

2014년 연초 2,000pt 수준이던 상해종합지수는 후강통 시행을 전후로 2,500pt를 돌파했고, 15년 6월에는 5,000pt를 돌파했다.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며 국내증시에서는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가 수혜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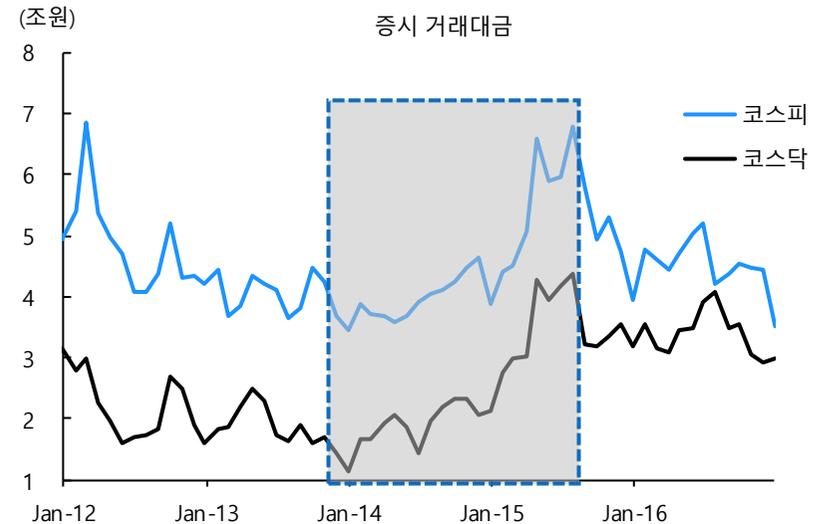
한국증시는 2012년 이후 이익부진을 겪었다. 증시는 지루한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고, 거래는 부진했다. 주도주에 목말라 있던 한국 시장에 "중국"이라는 변수는 꽤나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익이 부진한 가운데 매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중소형주의 상대 강세가 뚜렷하게 진행됐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하며, 모처럼 증시는 활기를 띄었다.

후강통 시행 이후 중국증시 급등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강세 속 증시 거래대금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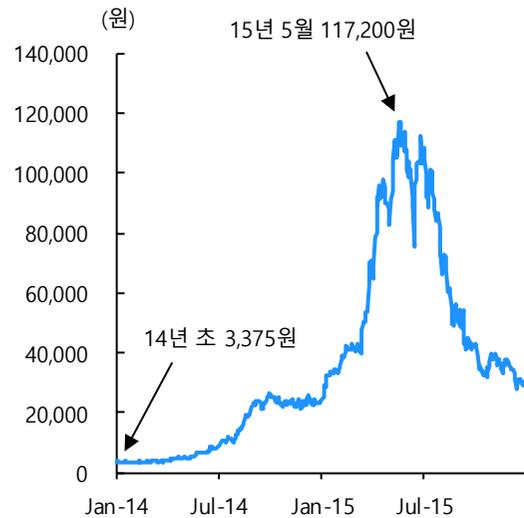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엘엔에스, 한미사이언스, 컴투스의 엄청난 상승률

화장품 대장주로 꼽힌 아모레퍼시픽이 장중 4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시가총액 5위에 오른 가운데, KOSDAQ에서는 급등하는 종목이 속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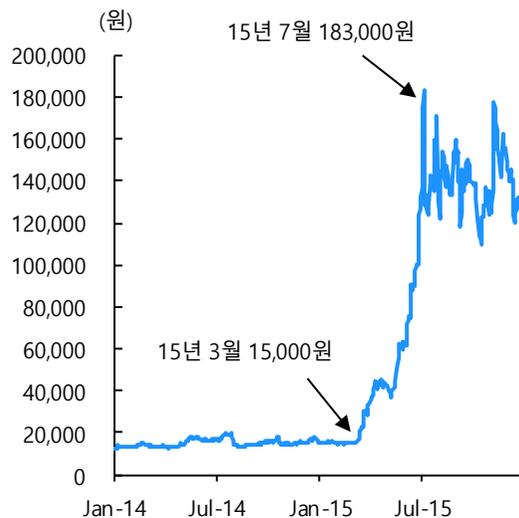
화장품주 중에서는 30배 상승한 삼성엘엔에스를 필두로 한국콜마홀딩스, 코스맥스(분할), 코스온 등이 급등했고 메디톡스, 한미사이언스 등이 기술수출에 성공하며 헬릭스미스, 제넥신 등 제약/바이오주의 동반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컴투스를 비롯해, 웹젠, 선데이토즈, 게임빌 등 모바일 게임주의 상승도 눈에 띄었다. 그 외 동원시스템즈, 동화기업, 한샘, 인바디, 삼립식품 등이 당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종목으로 꼽힌다.

삼성엘엔에스, 30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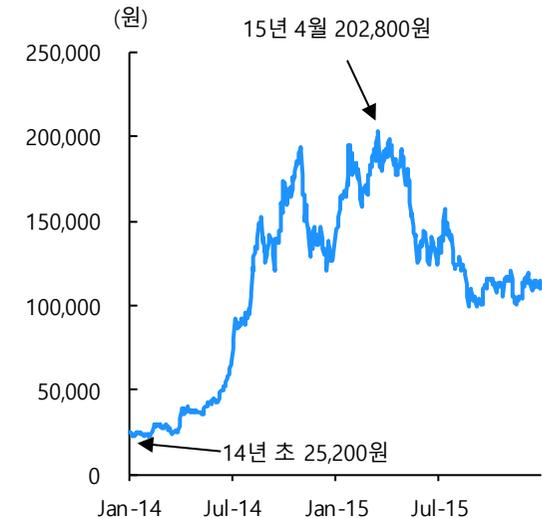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한미사이언스, 3개월만에 12배 상승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컴투스를 필두로 모바일게임주 동반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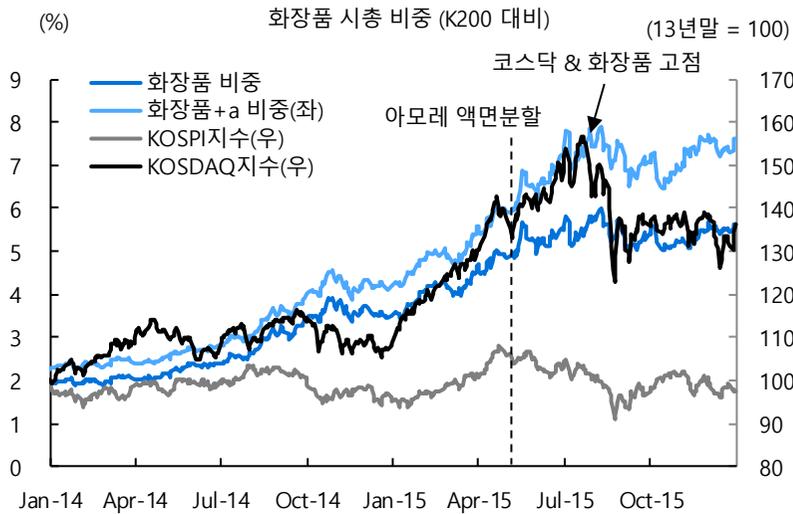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아모레퍼시픽 액면분할 이후 상승 속도 둔화, 한전 부지 매각 이후 한국전력 시총 2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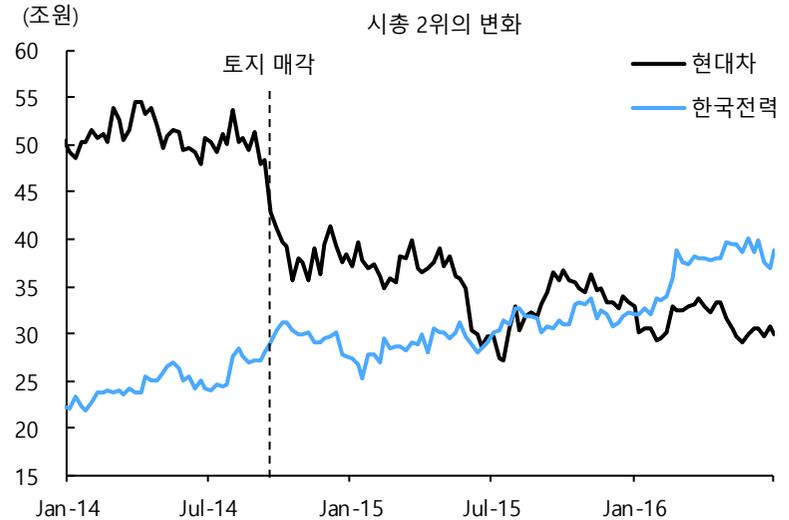
화장품, 모바일게임, 기술수출 제약/바이오주의 시총 비중은 14년 연초 2%에서 15년 4월 6%대로 높아졌다.
 한미약품의 상승세 이어지며 이들의 시총비중은 8%대까지 높아졌지만, 화장품주의 상승 속도는 4월 이후 둔화됐다.
 MERS의 확산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와 별개로 아모레의 액면분할도 하락의 빌미를 찾던 시장에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액면분할이후 16년 2월까지 40만원을 전후로 움직였는데, 액면분할가격이 388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상승은 아니었다.
 한편, 대형주에서도 눈에 띄는 순위 바뀜이 있었다.
 14년 9월 10조원 규모의 토지 매각 딜이 성사된 이후 매매 당사자인 두 기업의 시총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아모레 액면분할 이후 상승세 이어졌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



주: 아모레 2종목, LG생진, 코스맥스 2종목, 콜마 2종목, 삼성엘엔에스, 메디톡스, 한미 2종목, 컴투스, 웹젠, 선데이토즈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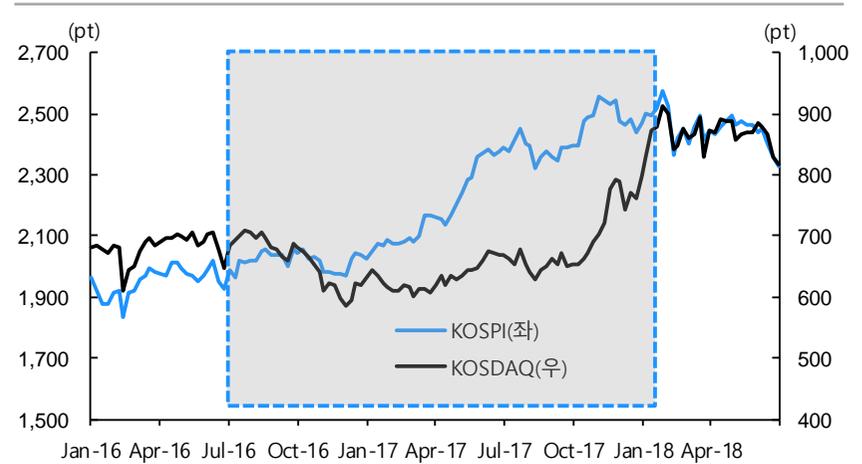
한전 부지 매각 이후 매매 당사자인 현대차, 한국전력의 시총 순위 역전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6~17년 POSCO → 반도체 → 셀트리온

기간	2016년 7월~2018년 1월
주도업종 / 테마	저PBR주 → 반도체 → KOSDAQ 대형주
시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 금리저점 확인 - SK하이닉스 시총 2위 등극 - KOSPI 사상 최고치 돌파 - 셀트리온 KOSPI 이전 (18년 2월)
하락 트리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트리온 KOSPI 이전 → KOSDAQ ETF 선순환 고리 끊어짐 - 미-중 무역분쟁의 시작



주요 종목 시총 순위 변화

종목 / 일자	2016년					2017년					2018년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월	2월	3월
SK하이닉스	11	8	6	5	3	3	3	2	2	2	2	2	2	2
POSCO	10	14	10	10	9	7	7	8	4	5	5	5	5	7
LG전자	26	25	29	31	33	28	24	21	28	20	20	21	22	21
KB금융	20	21	18	16	14	12	12	11	12	11	8	8	9	9
신한지주	12	11	11	11	10	9	8	10	9	13	14	13	12	13
셀트리온	23	24	22	23	21	22	28	25	25	15	9	4	4	3
LG화학	8	10	12	13	13	11	11	12	6	4	4	6	6	6
NAVER	9	6	5	6	5	5	5	4	7	7	6	7	8	8
아모레퍼시픽	5	4	8	8	11	13	14	13	15	18	17	18	19	19
현대차	2	3	3	2	2	2	2	3	3	3	3	3	3	4
기아차	13	12	14	14	16	16	17	19	21	29	28	30	29	30
한국전력	3	2	2	3	4	4	4	5	5	8	12	14	14	15
삼성생명	7	9	9	9	8	10	10	9	11	9	10	11	11	11
삼성물산	4	7	4	4	7	8	6	6	8	6	11	10	10	10

상승률 상위 주요 종목

코드	종목	수익률	최고순위
A003670	포스코케미칼	347.7	97
A068760	셀트리온제약	289.1	90
A068270	셀트리온	235.2	3
A000660	SK하이닉스	150.2	2
A028300	에이치엘비	130.8	136
A086790	하나금융지주	117.9	20
A009150	삼성전기	103.9	39
A105560	KB금융	96.5	8
A066570	LG전자	96.0	20
A036570	엔씨소프트	88.6	34
A005490	POSCO	82.9	4
A005930	삼성전자	78.0	1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상승의 시작은 POSCO, 17년부터 반도체 중심의 상승. SK하이닉스 시총 2위

시장은 16년 6월의 기준금리 인하(1.5% → 1.25%)를 마지막 금리 인하로 받아들였다.

연초 저점을 확인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그 동안 부진했던 저 PBR주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증시 관심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2017년,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며 주도주로 등극한다.

이들의 이익전망치는 빠른 속도로 높아졌고, 이에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증시의 PER이 낮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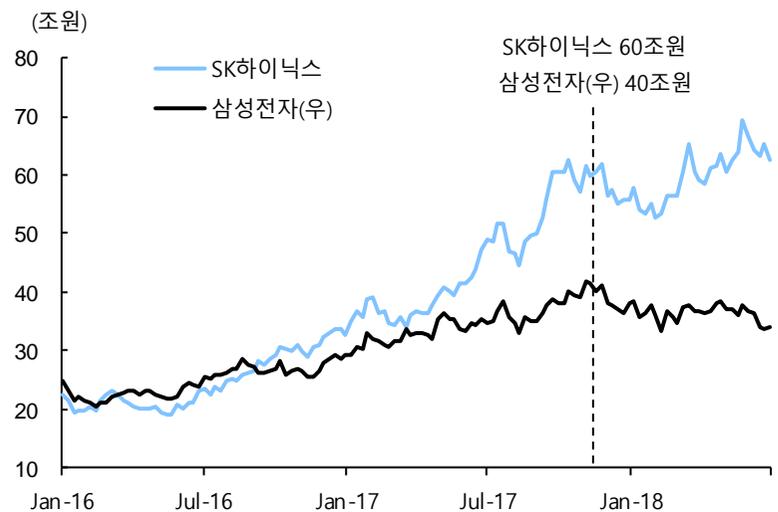
시총 1~2위의 빠른 상승은 KOSPI 지수를 움직였다. 6년간 깨지지 않았던 KOSPI 지수의 고점은 어렵지 않게 돌파됐다.

금리의 저점, 소외됐던 가치주가 부각된 계기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17년,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반도체의 독주 시작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하반기에는 코스닥의 상승 두드러짐. KOSDAQ ETF의 흥행이 만든 선순환

KOSPI 지수는 고점을 경신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KOSPI 지수가 상승한 탓에 종목별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 KOSDAQ 지수는 KOSPI 지수를 크게 Underperform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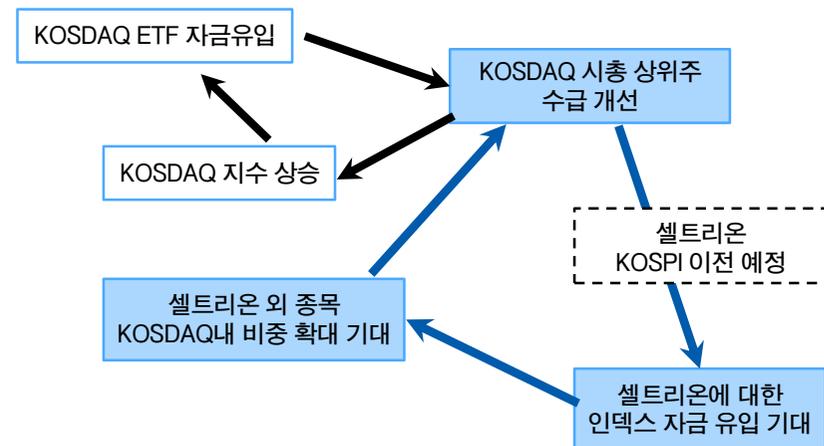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7년 하반기부터였다. 선후관계를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KOSDAQ ETF 상품의 흥행과 함께, KOSDAQ 150지수 상승 → ETF로의 자금 유입 → KOSDAQ 대형주 수급 개선 → 제약/바이오 급등 → 개인 수급 유입 → KOSDAQ 지수의 상승의 선순환이 만들어 졌고, KOSDAQ 지수는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했다.

17년 하반기 이후 KOSDAQ 뚜렷한 강세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의 급등이 이어질 수 있었던 선순환 고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셀트리온의 KOSPI 이전, 더 이상의 상승은 없었다. KOSDAQ은 급락

셀트리온의 KOSPI 이전 상승은 또 다른 호재였다. KOSDAQ ETF 관련 자금의 유입이 셀트리온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KOSPI 추종자금의 유입이 기대되며, 셀트리온과 KOSDAQ 150 지수의 상승이 지속됐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셀트리온 이전 이후 지수 내 비중이 확대된다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영이 추가로 이뤄졌다. 셀트리온 이전과 관련된 또 하나의 선순환 고리였다. 셀트리온 3사의 시총은 한 때 7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정작 셀트리온이 KOSPI로 이전한 이후의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KOSPI 이전이라는 이벤트는 Fundamental과는 상관없는 이벤트였고, 수급이 만들어 낸 비정상적인 주가가 정상화 되는 과정이었다.

셀트리온 이전 상장 이후 추가 상승은 없었다



주: 분기말 전망치 대비 실제치가 높았던 종목의 EWI 수익률.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셀트리온 이전 상장, KOSDAQ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주요종목 시총순위

주요종목 시총 순위 (06년~10년)

종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Q	2Q	3Q	4Q																
SK하이닉스	9	9	8	8	8	10	10	18	16	13	16	30	30	22	15	15	12	11	13	17
LG전자	11	13	17	19	19	17	16	13	10	7	9	8	8	5	7	7	8	10	11	13
LG디스플레이	7	10	10	12	12	12	11	8	8	10	14	14	12	10	11	14	13	12	15	15
현대차	5	5	5	9	9	9	9	10	9	8	8	10	10	6	3	3	3	3	3	3
현대모비스	20	22	22	20	25	28	31	32	33	30	26	17	20	15	10	8	10	8	7	5
기아차	19	24	29	32	35	41	51	65	57	52	40	40	50	38	32	29	26	17	16	11
POSCO	4	4	4	4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현대제철	54	46	44	51	49	49	40	35	34	35	37	44	41	33	34	31	27	29	25	23
LG화학	39	52	54	53	47	47	39	34	36	31	28	26	21	17	13	10	9	7	5	6
SK이노베이션	-	-	-	-	-	-	12	9	15	18	19	18	16	14	19	16	17	18	17	12
한국조선해양	25	20	16	14	11	6	3	3	3	3	3	5	5	4	8	11	7	9	8	4
삼성중공업	33	32	30	30	31	22	15	23	29	26	23	27	24	25	28	35	35	36	39	35
두산중공업	38	40	36	36	33	21	21	12	13	16	18	21	17	21	27	30	21	27	30	29
셀트리온	-	-	-	-	-	-	-	-	-	-	291	114	88	82	85	90	86	79	81	73
삼성바이오로직스	-	-	-	-	-	-	-	-	-	-	-	-	-	-	-	-	-	-	-	-
아모레퍼시픽	-	-	53	48	43	50	60	56	58	61	50	38	40	45	42	37	37	37	38	41
LG생활건강	103	95	88	81	74	76	88	75	70	64	58	47	53	59	50	44	39	40	40	42
삼성생명	-	-	-	-	-	-	-	-	-	-	-	-	-	-	-	-	-	-	6	9
삼성물산	-	-	-	-	-	-	-	-	-	-	-	-	-	-	-	-	-	-	-	-
NAVER	31	33	33	34	27	27	30	17	19	21	25	23	18	19	22	23	24	23	24	24
카카오	126	127	126	127	122	125	148	133	127	140	133	164	171	171	151	137	126	124	131	138
KT&G	16	15	13	16	18	18	19	21	18	15	10	9	9	12	20	21	23	26	27	28
SK텔레콤	6	6	7	5	7	8	8	7	7	9	7	4	4	8	9	9	11	13	14	16
KT	12	11	11	10	10	13	13	15	12	14	11	11	11	13	17	17	14	15	20	19
한국전력	2	3	3	3	4	4	4	4	4	5	4	3	3	3	4	6	4	5	9	10
KB금융	3	2	2	2	3	3	5	5	5	4	5	7	6	7	5	4	5	6	10	8
신한지주	10	7	6	6	5	5	6	6	6	6	6	6	7	9	6	5	6	4	4	7
하나금융지주	13	14	15	15	13	16	20	25	24	25	24	32	31	30	26	26	31	32	35	33
LG	24	28	32	31	30	29	23	16	17	12	13	15	15	11	12	13	16	16	12	14
SK	18	17	19	17	16	11	26	26	26	33	34	36	28	29	36	41	42	46	52	43

주: KB금융(국민은행포함), SK(합병이전 SK, 합병이후 SK C&C), 셀트리온은 우회상장 이후 기간만 포함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종목 시총 순위 (11년~15년)

종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SK하이닉스	13	12	15	13	10	10	11	10	10	7	7	6	4	3	3	3	3	3	4	6
LG전자	14	16	21	17	14	15	18	15	15	16	16	19	20	16	17	22	23	28	41	28
LG디스플레이	16	19	31	27	23	28	23	18	20	19	22	27	24	22	16	17	18	24	28	29
현대차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현대모비스	5	5	4	4	4	5	5	4	4	4	4	3	3	4	5	7	5	7	9	5
기아차	8	7	5	5	5	4	4	5	5	5	5	5	8	8	9	11	13	14	12	8
POSCO	2	3	3	3	3	3	3	3	3	3	3	4	5	5	4	5	6	8	14	16
현대제철	21	23	23	28	27	30	35	36	35	37	35	34	27	29	29	33	33	32	39	41
LG화학	6	6	7	6	6	7	6	6	8	10	9	12	12	11	12	15	16	15	15	11
SK이노베이션	12	10	11	12	13	13	12	12	12	15	15	15	15	20	28	32	30	23	24	23
한국조선해양	4	4	6	7	7	6	8	11	11	12	12	10	13	13	22	27	29	25	37	40
삼성중공업	33	26	30	37	31	26	27	29	28	28	25	24	29	36	42	43	56	65	79	84
두산중공업	35	45	46	40	35	43	42	47	52	51	49	58	61	62	73	77	78	85	103	94
셀트리온	63	62	54	55	59	53	50	52	48	60	47	57	53	48	56	55	46	30	30	24
삼성바이오로직스	-	-	-	-	-	-	-	-	-	-	-	-	-	-	-	-	-	-	-	-
아모레퍼시픽	45	43	42	38	45	40	40	33	43	43	45	46	39	27	20	14	14	5	6	7
LG생활건강	46	42	36	30	32	25	22	23	25	26	29	30	30	32	35	24	22	20	21	18
삼성생명	10	11	9	9	9	8	7	7	6	6	6	9	10	10	11	8	9	9	10	9
삼성물산	-	-	-	-	-	-	-	-	-	-	-	-	-	-	-	-	12	6	5	4
NAVER	28	30	24	16	19	14	14	16	16	13	13	8	6	7	7	6	7	12	13	12
카카오	137	124	111	103	117	119	119	133	131	142	140	142	150	142	107	35	32	44	35	42
KT&G	34	34	27	21	22	18	15	17	21	20	20	21	19	17	15	16	20	19	17	17
SK텔레콤	17	18	18	14	18	19	16	14	14	11	11	13	11	12	10	10	8	10	8	14
KT	25	29	22	24	30	34	26	24	26	23	23	26	28	28	31	29	35	40	36	35
한국전력	11	13	12	10	11	12	10	8	7	8	10	11	7	6	6	4	4	4	3	3
KB금융	9	9	10	11	12	11	13	13	13	14	14	14	14	14	13	12	15	16	19	20
신한지주	7	8	8	8	8	9	9	9	9	9	8	7	9	9	8	9	11	13	11	13
하나금융지주	27	28	29	25	25	24	28	30	27	22	21	18	16	18	19	23	28	29	32	34
LG	15	15	19	20	16	21	20	20	18	18	18	20	21	21	18	19	21	22	22	22
SK	40	33	37	41	38	41	34	31	29	29	28	25	25	26	32	31	31	33	16	15

주: KB금융(국민은행포함), SK(합병이전 SK, 합병이후 SK C&C), 셀트리온은 우회상장 이후 기간만 포함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종목 시총 순위 (16년~20년)

종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2월	3~4월	5~6월	7~9월
SK하이닉스	8	9	7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LG전자	26	27	30	33	30	23	29	21	21	21	29	27	25	25	27	26	27	27	26	24
LG디스플레이	31	30	25	26	26	28	31	32	33	37	40	41	39	41	46	47	45	48	52	52
현대차	3	3	3	4	3	3	3	3	4	4	6	6	4	3	3	4	5	7	10	8
현대모비스	5	4	6	7	6	7	12	9	12	11	11	15	12	8	5	6	8	11	12	11
기아차	11	13	13	15	16	17	22	28	27	28	25	24	21	17	14	16	17	21	22	16
POSCO	14	11	10	9	7	8	4	4	5	5	5	7	7	6	10	10	12	13	16	15
현대제철	39	38	39	37	34	39	40	41	42	40	41	44	42	45	47	53	56	69	73	73
LG화학	10	10	15	14	12	12	8	5	7	7	7	5	5	5	4	8	6	6	6	5
SK이노베이션	20	18	19	18	17	16	16	17	18	18	18	16	19	20	19	21	25	28	25	22
한국조선해양	33	32	27	24	23	31	34	38	38	36	37	33	33	36	35	31	33	36	38	39
삼성중공업	86	94	91	65	62	61	64	65	71	63	63	60	50	50	51	52	52	65	63	66
두산중공업	109	86	77	75	76	92	114	123	146	129	136	146	175	151	149	159	160	159	170	91
셀트리온	21	23	21	21	22	27	20	13	3	3	3	3	3	4	7	7	7	5	5	6
삼성바이오로직스	-	-	-	-	24	20	14	12	6	6	4	4	6	9	12	5	3	3	3	3
아모레퍼시픽	6	5	8	11	14	14	17	19	20	17	21	28	28	26	32	30	26	25	27	31
LG생활건강	18	16	16	20	19	19	19	18	19	15	15	18	14	10	11	11	10	8	9	10
삼성생명	7	8	9	8	10	10	10	8	11	13	16	17	17	19	21	20	22	26	29	29
삼성물산	4	6	4	5	8	6	7	7	10	8	9	9	9	13	15	13	9	10	11	12
NAVER	9	7	5	6	5	5	6	6	8	10	8	11	10	12	6	3	4	4	4	4
카카오	44	41	45	45	45	43	39	34	34	35	33	35	34	30	26	23	20	14	8	7
KT&G	17	15	14	17	18	18	18	20	26	23	22	21	22	22	22	22	24	23	24	28
SK텔레콤	13	14	12	12	13	13	13	15	16	19	12	8	11	11	9	12	14	12	15	13
KT	34	33	33	31	35	34	36	39	40	42	39	38	38	39	37	39	38	38	37	38
한국전력	2	2	2	3	4	4	5	10	14	12	14	14	8	16	16	17	16	18	21	27
KB금융	23	20	18	13	11	11	11	11	9	9	10	10	15	14	13	14	15	16	19	19
신한지주	12	12	11	10	9	9	9	14	13	14	13	12	13	7	8	9	13	17	17	20
하나금융지주	43	37	34	28	27	25	21	26	24	26	26	26	26	27	29	29	29	32	32	33
LG	22	24	24	27	25	22	23	24	23	25	28	25	24	24	23	24	23	24	23	23
SK	15	17	17	16	15	15	15	16	15	16	17	13	16	15	20	15	18	20	14	17

주: KB금융(국민은행포함), SK(합병이전 SK, 합병이후 SK C&C), 셀트리온은 우회상장 이후 기간만 포함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김광현)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